



#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신학과 신앙

*(The Theology and Its Faith of Restoration of God's Image)*

## 제 1 권



2018 ITCS campus

## 전화령

캄보디아 국제 신학대학 대학원

## 목 차

목차/2

머릿말 / 5

제 1 장 서론 / 7

1. 연구목적 / 8
2. 연구방법 / 9
3. 연구범위 / 10

제 2 장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성경적 정의 / 16

서론: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란 무엇인가? / 17

I. 하나님 형상의 회복 / 18

II. 성경 속에 하나님 형상 회복 개념의 발전 / 19

III.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관한 연구의 역사적 발전 (인간론과 구원론)  
/ 23

IV. 하나님 형상회복의 의미와 적용분야 / 27

V. 하나님 형상의 회복 중심한 성경해석 / 31

VI. 삼위 하나님의 형상 관계 / 35

1. 성부의 형상과 성자의 형상의 관계 / 36
2. 성부의 형상과 성령의 형상의 관계 / 36
3. 성자의 형상과 성령의 형상의 관계 / 37

4.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 37

5. 정리 - 의의 성품, 인의 성품, 신의 성품 / 40

제 3 장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이루는 네 가지 수단 / 47

1.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 50

2.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목표에 이른다 / 53

3. 성령의 역사로 그 목표에 이른다 / 65

4.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 / 98

제 4 장 성경 속에 보여진 하나님 형상의 회복 / 112

I.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형상의 회복 / 113

A. 모세오경/113 - 창세기/113, 출애굽기/122, 레위기/130,

민수기/135, 신명기 /139

B. 역사서/142, - 여호수아/146, 사사기/169/ 룻기/185

## 머릿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안지 50 여년 (목회사역 30 여년, 교육사역 20 여년 선교사역 10 여년) 필자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신학과 신앙”이란 주제를 우리 시대에 표현하고 싶어했다. 이것은 여러 고난의 밤을 지나오면서 필자의 가슴 속에 성령이 새겨 놓으신 진리의 확신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처음 믿어 한 감리교인의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복음주의적 신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캄보디아에 사역하신 위대한 목회자와 설교자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세계적 개혁주의 거성들, 엠지 클라인, 클라우니, 제이 아담스, 테니슨, 가프리, 후레임 그리고 나의 박사학위 논문 멘토인 죠셉 파이파 박사님을 만나면서 필자의 주제는 더욱 견고해졌었다. 그 후 캄보디아에서 교육과 선교사역을 하는 중, 동료교수들과 후학들과 캄보디아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떤 유익을 주려고 이것을 정리하게 되었다.

막연히 캄보디아 25 개도에 브니엘장로교회 지교회를 세운다는 목표와 에베소서 교회의 부흥운동과 캄보디아 목회자들의 자립사역을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려는 새로운 비전아래 소형세미나를 통해 필자가 깨달은 진리를 서로 나누고 싶은 열망이, 킬링필드, 물의 나라,

더운 나라 그리고 푸른 초원의 나라 위에 성경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려는 도구로 이 교제를 제시한 것이다.

13 년동안 인생 길에서 수많은 눈물, 곤고 그리고 절망의 수렁에  
거하게 하신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두운 병상에서 비참함 속에 있는 나에게 “너를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합 3:19 )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책을 정리한다.

본 내용은 필자가 따랐던 구속사적 신학과 청교도신학을 근간으로  
설교 신학과 30 년 이상의 목회경험과 20 여년 개혁신학 교수로서의  
사역이 녹아있고 개인적으로 파라처취 운동의 성경공부 교재연구,  
평신도를 위한 기독교 교리 및 각권 성경 세계를 집필 하는 중,  
캄보디아의 개혁주의 신학교 ITCS 와 성경장로교 교회 노회  
(CBPCP)와 브니엘 교회(CPPC)와 캄보디아 25 개도의 브니엘 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현장감을 가지고 다루게 될 것이다.

평소 이 땅 위에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필자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이기때 매우 고무적이다.

이 일을 위하여 오랜 세월동안 나의 전공인 구약신학, 설교신학  
그리고 청교도신학에 관한 주제를 매 학기마다 질문 대답을 통해

건고하게 한 캄보디아 국제신학대학교 신학생들과 동료교수들의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미국 브니엘 장로교회 성도들과 캄보디아 브니엘 장로교회 성도들 그리고 10 명의 캄보디아 스태프들의 변함없는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린다.

캄보디아에서나 미국 어디서나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 편집을 위하여 기도와 침묵과 격려로 협력한 사랑하는 가족, 아내 전중임, 세 딸들, 에스더, 샤론, 메리에게 감사하며 이 선교 사역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여러 선교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외에도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하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고마운 마음과 격려의 손길들을 생각하며 감사한다.

12 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강원도 산간 겨울 들판에서 무릎을 꿇고 “나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바로 전하게 해주소서”라고 한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도록 이끄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돌린다.

2017 년 6 월 30 일

미국 캘리포니아 포모나 서재에서

## 제 1 장 서론

### 1. 연구 동기와 목적

하나님 형상회복의 주제는 필자가 평생 추구하고 주장한 신학이고 신앙의 표현이다. 이 주제는 필자가 50년전 고등학교 1학년 되던 17세에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감격에 이끌려 성경을 읽고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는 등,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때 가난한 시골에서 나의 장래를 생각하는 중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한달동안 집 뒷편 언덕의 눈 바닥 위에서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하기를 “주의 뜻을 잘 알게하시고 주의 뜻을 잘 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기도를 기억한다. 그 때 나는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그룹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이런 열망은 나로 새벽기도회서부터 모든 교회 모임의 출석은 물론 수련회, 부흥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열심히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렇게 쉬운 믿음을 알지 못하는 학교친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어느날 나는 이런 귀한 은혜를 더 받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중에 “성경을 읽어라”는 한 권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성경 읽기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는 중 강학건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고 그 아래서 신앙지도를 받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더욱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신앙과 신학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합동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미하여 미국에서 30년 이상을 목회하며 세계적 개혁주의 학교로 통하는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실시하는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청교도 설교와 구속사적 설교를 접목하여 효과적인 강해설교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04년도에 건강 문제로 큰 일을 치르는 중, 캄보디아 국제 대학 대학원의 교수로 부름받아 10년을 섬기는 중 항상 이 주제를 중심한 필자의 확신을 나누고 싶었다. 더욱이 ITCS 학장, 김현 박사님의 배려로 구약학을 도맡아 가르치는 중 설교학, 목회학, 존 칼빈과 게르할더스 보스와 엠지 클라인의 성경신학적 연구를 통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주제로 쓴, 틈틈히 모아 둔 글들과 13년 동안 미주 크리스찬 신문의 가정 예배칼럼에 기고한 설교들을 검토하여 본 글을 쓰는데 적잖은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신학과 신앙에 관하여 글을 쓰게 되어 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정리하며 새로운 선교 세계로 나가는 발판을 갖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글이 내가 섬기는 미국 KAPC 교회 교역자들과 캄보디아 성경장로교회교회 노회(CBPCP)의 교역자들과 ITCS 학생들과 캄보디아에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세우려는 교회의 새로운 발돋움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 2. 연구 방법

하나님 형상 회복의 신학과 신앙은 필자가 다루는 모든 사역 분야에 궁극적인 목적이며 방법이다. 나는 하나님 형상회복의 성경적 정의를 내리고 그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표현 되었는가를 길게 다룰 뿐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연구의 발전 과정을 다루고 또한 구원론의 관점에서 본 주제가 어떻게 연구 되었는가를 취급하게 된다. 그 후 이 주제를 목회 신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교회와 신자가 나타내어야 할 기독교적 윤리의 열매인 의, 인, 신 곧, 하나님 성품의 표현이며 언약의 절정에 해당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하여 구체적인 교과 과정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기초가 된 두 권의 책인 교리와 생활을 축으로 필자의 창의적 교재 곧, 겸손한 복종, 자아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생활, 절제 생활 그리고 일반은총을 누리는 생활을 제시함으로 마쳐진다.

### 3. 연구의 범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은혜와 깨달음을 적용할 분야는 아래와 같다.

1) 이것은 교회 조직의 목적이다. 개혁교회의 세 직분,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는 그 뿌리를 메시아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연속성을 믿는 진리에 두고 있다. 이것의 목적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의,인,신이 그것이다. 교회의 모든 구조와 활동은 바로 이런 목표로 움직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활동은 모두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2) 이것은 목회 사역의 목적이다. 교회의 세가지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전파와 신실한 성찬집행 그리고 신실한 권징이다. 이것은 하나님 형상회복의 구체적인 사역이다. 이 세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목회사역은 이것을 중시해야만 한다. 이 세가지가 목사의 주임무가 됨은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3) 이것은 선교 사역의 목적이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사명에 주된 사역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신자가 되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세가지가 강조된다. 모든 족속을 향한 전도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세례를 받게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모두 지키게 하는 교육이 신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자기 가족에서 시작하여 자기 마을, 나아가 예루살렘 도시,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것이다. 이것이 지상 대위임령의 타켓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에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다. 선교의 성공여부는 많은 업적보다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인 의와 인과 신의 나타남이어야 한다. 이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다.

4) 이것은 설교의 목적이다. 목회사역에 신실한 말씀 선포는 교회의 표지이면서 교회의 중심사역이고 목사의 부름의 목표이고 교회의 모든 활동의 능력이 공급되는 원천이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의 사역자는 탁월한 재능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은사받은 자로 곧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은 안수받은 목사로 제한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증거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전하는 메시지와 대상은 변함이 없으나 전하는 설교자의 무자격으로 인하여 본질이 장애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딤편 3 장의 감독의 자격 조항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삼요소 의인신의 표준을 따른 것이다. 설교자, 설교준비, 설교강해, 설교응답의 평가 기준의 근거가 바로 이 세가지 요소에 놓여있음을 보인다. 이 말은 설교자가 부름을 받은 후에도 설교자로서 말씀을 옳게 분변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현상이 되어야 하고 그 일로 초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만 한다. 행 2: 에 언급된 초대 교회에서 우리는 의,인,신의 열매를 발견한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지배하는 때와 장소가 부흥의 실재이고

부흥의 능력이다.

5) 이것은 신학교육의 목적이다. 생각은 이론을, 이론은 교리를, 교리는 신학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 표한 것이다. 그래서 존 오웬은 아담은 시작부터 하나님에 관해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신학자로 부름받았다고 한다. 죄가 들어옴으로 이 기능은 마비되어 참 하나님 대신 인간 생각의 산물인 우상을 대용물로 삼아 세속적 체계를 세워놓았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신학의 중심인 것은 성경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중심인 것은 신학의 중심이어야 한다. 칼빈주의 곧, 개혁주의의 두 축인 주권주의와 종의도는 계시의 빛아래 선 자들에게 발견된 것으로서 신학과 신앙의 양기둥이 된다. 구원에 관한 틀립 사상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삶을 위한 시녀이어야 한다.

6) 이것은 크리스찬의 윤리와 사회 참여의 목표이다.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도 가르치셨지만 “너희 주, 너희 하나님”도 가르치셨다. 생활의 윤리와 사회에 참여하는 일에 정신을 제시하셨다. 그것이 바로 의와 인과 신이다. 사람은 혼자로는 도덕적인데 여럿이 모이면 비도덕화하는 존재이기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중심할 때 성경적 사회가 이룩된다.

청교도의 세계관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 사회 곧, 하나님의 형상을 삶에 나타내는 사회가 이룩됨을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세속주의의 다원화 속에서 이 기준을 더욱 더 분명히 해야 한다. 저 언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열심을 이상으로 삼고 나간 퓨리탄의 사회적 목표가 강조되어야 한다.

7)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중심적 성경 해석을 지향한다. 성경 해석은 모든 사상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목사를 부르신 목적이 성경을 옳게 분별함으로 그것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 중심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8) 이것은 일반은총과 바른 관계를 위한 균형대이다. 일반은총을 떠난 특별 은총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은총이 제 위치를 지키지 아니할 때 인본주의로 떨어지고 구원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면 육신의 병은 치유되어도 구원에 이루지 못할 수 있고 병이 치유되지 않고 더 중하여도 구원에 이르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을 목표로 두지 말고 그리스도 안의 의와 인과 신을 추구할 때 더 복된 자리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 형상 회복의 신학은 성경과 개혁신학에 근거를 둔 것이다. 필자가 신학공부시절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문답의 해설판인 GI Williamson 의 이해에 관심을 가지고 개혁신학의 체계를 확인하고

그 후 클라우니와 포이즈레스의 가르침을 통해 이 원리를 성경해석에 적용하다가 구약신학의 거장인 클라인의 하나님의 성령의 형상의 영광 (The glory of image of God's Spirit), 왕국 서론(Kingdom Prologue) 이란 책을 통해 나의 관점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었다.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설교학, 청교도신학, 성경신학, 성경해석학, 개혁주의자의 삶의 실재, 구약신학 그리고 목회학 등을 20년 이상 미국,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에서 가르치면서 이 주제들을 적용하려고 힘썼다. 개혁신학과 신앙을 좋아하는 필자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신학과 신앙이란 주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적응성있게 대변할 수 있는 주제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론적 사변적 삶에 빠지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제 2 장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성경적 정의

우리의 목표에 이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개념에 관한 성경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 여기 나온 “회복 (restoration)”이란 다른 말로 “구속” 혹은, “구원”이다. 회복이란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 곧, 하나님과 연합의 상태 곧, 영생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엡 3:18) 혹자는 회복의 개념을 구속의 긍정적인 방면을 도외시하는 소극적인 의미로만 제한시키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영원한 경륜 곧,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서 결정된 구속인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가리킨다. 한 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출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개인은 성령으로 영혼 속에 새 생명이 심겨진 영생가진 사람 곧, 하나님과의 연합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정의할 필요성을 가진다.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 우리의 영혼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 1.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란 무엇인가?

서론

클라인의 이해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공허, 흑암, 혼돈 그리고 어두움에 속한 세상을 창조한 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아름다운 상태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를 가리킨다. 삼위일체의 천상회의를 걸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일은 바로 구원의 목표를 암시한 것이다. (창 1:26-27)

이 점에 대해 클라인은 하나님이 가지신 두가지 목적을 암시한다. 첫째로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하는 목적을 보인 것이고 둘째는 인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비전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 상태를 가리킨다.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를 가진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고전 3:16) 그래서 형상의 회복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누리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위에서 정의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으로서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만 하는 목표이다. Westminster Confession 소요리문답 제 1 문에

사람의 제일되는 목표가 무엇이냐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이라는 답변은 바로 이 회복의 적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구원받음으로 시작하여 그 구원의 열매가 모든 삶에 표현됨으로서 그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뿐 아니라 그 분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가지는 상태를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 하나님의 위격마다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란 성부의 사랑의 성품을 닮는 것이고 성자의 구속의 성품에 참여함이고 (롬 8:29) 성령의 능력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 I. 하나님의 형상 회복

1. 성경적 “회복 (restoration)” 이란 “위로” (눅 2:25), “건강” (행 4:22), “개혁” (히 9:10 diorthosis) 으로 사용되었으나 행 3:21 절에 나온 “회복, 아포카타스카시스 (apokataskasis)”는 참된 신정과 타락 전으로 돌아간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필자가 사용하는 회복은 그것을 포용한 구속의 다른 표현이다. 아폴리트로시스 (apolytroisis) (롬 3:23-24, 엡 1:7-8, 갈 3:13, 4:3-5 눅 21:28, 롬 3:24 8:23 고전 1:30 엡 1:7, 14 4:30 골 1:14 히 9:5, 11:5)는 과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선 사건 곧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신적 경륜 (divine economy)이 완성된 구속의 영광까지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깨달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관계에서 보여진 연속성 위에 불연속성을 가진 구원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회복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란 “새 언약 안에서 구속받은 자의 변화된 상태”를 가리킨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모든 생활 방면에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모든 삶에 나타내는 구속 윤리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2.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란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 곧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가리킨다. 즉, 사도가 규정한 에베소서 4:23-24 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 진리와 거룩과 의는 하나님의 형상의 요점이다.

3.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져 사탄의 형상으로 변한 형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기고 모든 사상, 모든 이론, 모든 생활 그리고 모든 사역을 포함하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상태”(엡 3:20)를 가리킨다.

## II. 성경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개념의 발전

1. 창조전- 하나님 형상회복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놓여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4 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6 가지로 언급된다.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 그리고 진리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형상의 3 가지 특징, 의, 인 그리고 신으로 정리한다. 이것은 율법(성경)의 본질적 요소로서 인간의 본질적 구조를 암시한다.(마 23:23) 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거친 청사진을 따라 세가지 속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 (창 1:27-28) 하나님 형상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따른 것이다.

2. 창조시- 창조는 하나님의 성품의 첫번 나타남이다. 6 일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피조물이 소유한 깊고 넓고 높은 부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피조물 속의 신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포이츠레스의 관찰에 의하면 말씀은 세가지 요소 즉, 의미, 통제와 임재를 포함한다. 성부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성자는 그 의미 자체이고 성령은 모든 곳에 그 의미로 임재하신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다. (롬 12:11)

3. 첫 아담에게서 -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통한 결정이었다. (창 1:27-28) 불복종 전, 첫 사람의 구조는 의와 인과 신으로 충분한 기능을 가졌다. 그런 성품은 그의 죄 때문에 창조전의 흑암과 혼돈과 깊음 위에 땅의 모양처럼 사탄의 형상으로 변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세 방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자유 의지의 기능을 포함한다.

4. 아담의 타락 후 - 아담이 타락하자 마자 하나님은 곧 이어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형상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창세기 3:15 절에 나온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준다. 그 속에서 우리는 1)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하나님과의 연합(임마누엘)을 의미하고 2)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전능으로 구원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였고 3) 종말론적 영적 전쟁을 통하여 그 회복이 완성되어짐을 본다.

그 후 인류 역사는 하나님 형상 회복의 역사의 흐름을 따랐다. 은혜언약의 최초의 본을 보인 아브라함과 언약 백성의 모델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의 점진적 회복에 대한 계시적 그림들과 설명에 의해 성숙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라 속의 족장의 삶 속에 하나님 형상회복의 실제요소,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시편과 잠언을 통해 그 영가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

형상회복의 완전한 그림 속에 종말론적 소망을 선지자들과 함께 소리칠 수 있다. 성경적 원리는 믿음의 열매인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의미한다.

5. 그리스도 안에서 -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구약보다 더욱 더 빛난다. (골 1:15).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참 형상을 볼 수 있다. (요 1:14)

6. 그리스도의 역할에서 -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흉칙한 이미지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갱신시킨 원천이었다.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적용적 역할을 통해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벌써 소유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고후 3:18)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간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변화받는다라는 뜻이다. (골 5:17 엡 2:10)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다. (빌 1:7)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서지게 했다. 의가 불의로, 신실이 거짓으로, 그리고 거룩이 탐욕으로 바뀌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증보사역으로 회복되었다. (고후 5:17 엡 4:23) 첫 사람이 죄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양의 상징주의를 나타내셨다. 최초의 구속적 계시가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으로 창세기 3:15 절에 나온다. 하나님에 의해 남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옷을 동물의 가죽으로 바꾸어주셨다. 이것은 구원의 상징주의로 신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구원을 강조한 것이다. (요 1:14, 골 1:17) 그 가죽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옷으로 바뀌어질 것을 예상하셨다.

### III. 하나님 형상 회복에 관한 연구의 역사적 발전 (인간론과 구원론)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원리가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연구 발전했는가를 검토 할 차례가 되었다. “하나님 형상”이란 인간론적 주제와 구원론적 “회복”이란 주제로 나누어 생각하려 한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실제로 탄생된 교회는 어떻게 그 주제를 다루었는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현대교회의 흐름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이 주제의 발전을 알기 위하여 몇가지 질 문에 답한다. 1)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해되어졌는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세가지 성품 의,인,신 과의 관련성이 있는가? 2) 구원과 회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 성경에 관한 이해와 신학

자들의 이해가 어떠한가를 앎으로 우리의 주제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정통주의자인 빠르트는 역사적으로 교부들의 형상에 관한 정의들, 암브 로스는 영혼(soul), 아타나시우스는 합리성 (rationality) 그리고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의 삼위의 기능에 비교하여 세가지 기능 즉, 영혼, 기억(memoria) 그리고 지성 (intelectus)을 가리킨다고 지적하면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무엇 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의신학자인 헐만 바빙크는 그의 교의학에서 세가지로 정의한다. 1. 삼위일체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그려 주고, 2. 하나님의 형상은 세가지 관계 즉, 개인관계, 남녀관계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함하며 그리고 3. 그 형상이 원죄의 유기적 성격을 통해 반영 된다고 본다. (창 1-2,9:6 고전 15:12-58 롬 5:12-19)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로 돌릴 수 있으나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에 관하여 그림계시와 설명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활동 계시를 통하여 그것을 정의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창세기 1:26-27 절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울 사도가 지적한대로 그의 도덕적 속성인 의,인,신 (마 23:23) 혹은, 의와 사랑(눅 11:43)이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사도가 본대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속성인 신실성, 거룩성 그리고 의로 표현될 수 있다. 고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의,인,신의 성품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구속의 열매가 도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2. 그러면 회복이란 무엇인가? 회복이란 다른 말로 구속(redemption)이란 뜻이다. 일반적으로 구속을 구출의 내용으로만 이해하고 중요한 파트인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경적 구속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회복 역시 원래의 죄짓기 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성경적 회복이 아니다. 이것은 더욱이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거룩함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내용을 간과한다면 성경적 회복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완전히 화하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요 17:24)

그래서 우리는 신론, 인간론의 관점에 이어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 회복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고찰할 필요를 가진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구원론적 이해로 나간다.

우리의 주제인 회복이란 창세기의 에덴동산에서 창세기 3:15 절의 일방적인 약속이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이 구속을 암시하지만 에덴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 3:22)“ 하신 하나님의 독백 속에서 죄를 해결한 후, 에덴의 복귀를 암시하셨다. 그 일로 아담이 배운 최초의 지식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은 피 흘림의 제단 뿐임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여러 상징주의로 보여주시다가 종말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를 통한 회복의 길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계시인 계시록에서 창세기의 에덴이 회복됨을 본다.

그러나 이 회복은 외형적인 회복이지 실상은 더 깊은 내용을 가진다. 죄로 인해 아담이 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인,신의 아름다움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으로 성취되어 거룩과 거룩의 만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회복의 종착지이다. 이것은 죄를 짓기 전의 아담의 형상의 성격을 뛰어 넘어 죄를 범할 수 없는 자리 곧 하나님의 참 형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것과 연합된 영광과 거룩의 상태까지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그 결론을 클라인의 이해에 의존하여 정리한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두가지 목적이 성취된 상태라는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이란 뜻이다. 그는 왕국의 서론에서 그 형상인 인간의 성품을 중심으로 제사장직, 왕직 및 선지자직의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신학적 연구를 통하여 예리하게 설명한다.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준 신정의 메시아의 삼중직, 즉,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통해 그 성품을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을 보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구속사의 마지막 지점에 이룬 이상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충분히 즐거워하는 상태가 현실 상황에 나타나야 할 영광인 것을 보인다.

칼빈의 말한대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일반은총을 누리며 감사하며 즐기며 살지만 여전히 영원한 미래의 세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확인한 셈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목표로 살아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수고할 뿐 아니라 장차 펼쳐질 그 영광을 미리 맛보며 사는 미래지향적 사람이 되는 것이다.

#### IV. 하나님 형상 회복의 의미의 적용적 분야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상징주의와 모형주의를 다룰 때 먼저 그리스도의 거울을 지나가야 한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 형상 회복의 풍성함을 찾는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가?

1. 그리스도 안의 세가지 권위 -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나타났다. 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이다. (벧전 2:9) 제사장은 긍휼에, 선지자는 진실에, 왕은 의에 초점을 맞춘다. 성령은 교회 안의 이 세 성품을 나타내는데 좌우된다.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이 이것이 세워짐은 교회 안의 본과 기준과 중심임을 증거한다.

2. 하나님 형상 안의 윤리적 열매- 삼중직은 생활의 윤리 속의 의, 인, 신으로 표현된다. (클라인의 개인의 윤리를 참조할 것) 궁극적으로 그 윤리는 그리스도 형상의 내용이고, 성령의 열매이며, 바른 교훈의 꽃이다. 바울은 이것을 빛의 열매 (엡 5:9)로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함과 의 혹은, 의와 긍휼(시 136:)로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삼중직 즉,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다.

3. 말씀 안의 하나님의 형상 - 창조의 말씀은 세가지 열매를 창조의 수단으로서 만들 수 있는 세가지 요소를 가진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알아야만 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자라난다. (딤후 1:23 벧전 2:1 딤후 3:16-18) 만일 사람이 성경을 의존하지 않으면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참되이 복받은 자는 성경을 묵상하는 자이다. (포이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인 의미 통제 임재를 가지나 후레임은 권위 통제 임재로 본다.)

4. 교회의 세 직분으로 나타난 하나님 형상의 세가지 요소 의,인,신, 하나님의 형상의 세가지 특징은 구약 교회가 그들에 삶에 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3 중직, 왕, 선지, 제사장과 관련된다. 거룩은 제사장직의 중심이고 신실은 선지자, 그리고 왕의 중심은 의가 된다. 죄가 이 셋을 어둡게 했어도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는 성령안에서 세가지 직분의 활동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메시아의 직분의 성격이고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G I Williamson 에 의하면 본래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이 3 중직과 관련된다는 성경적 구절은 나타나지 않으나 성경의 흐름을 따라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조항이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으로 인격화된 사람을 설명하기 때문에 형상과 직분은 뿌리와 열매처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자연히 이 형상은 개혁교회의 직분에 반영되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사역 구속사적 선상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사도들이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 삼중직의 나타남은 다른 말로 각 직분의 독특성인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성품이 지배하는 삶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신정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다. 이 관계를 아래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할 수 있다



보여주어야 한다. 생애가운데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모든 사역의 목표이다. 주님과 사도의 가르침은 이 점을 강조한다. 교회의 윤리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어야만 한다. 이 원리가 의, 인, 신이다. 이것이 계시의 생활이고 성령의 생활이고 구속의 생활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고 그 백성은 말씀을 따른 순례길에서 긍극적인 목표를 즐기게 된다.

## 6. 하나님의 형상의 마지막 모습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형상의 마침이 될 것이다. 파루시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현현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성령은 성령의 형상을 거룩과 영광의 원형으로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중심한 깨달음으로 성경을 접근할 때 구속 계시의 성경적 해석을 배우게 된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V. 하나님 형상의 회복 중심적 성경 해석

### 1. 원리

1) 두 지평의 융합이 성경적 해석의 목표이다. 개혁주의적 해석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구절과 다른 구절과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과학적 활동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은 전체의 책으로 해석하라”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사용한다. 성경해석의 최상의 활동은 성경의 수직과 해석자의 수평이 융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해석자가 그 구절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해석적 적용이라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바른 해석은 무엇보다도 전체 책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구속역사적 견해)

2) 그것은 구속역사적 견해를 강조한다. 성경신학의 구속역사적 견해는 개혁신학의 기초이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믿음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해석자는 성경신학을 깊이 이해해야만 한다.

3)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다. (포이즈레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감시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해석이 필요하다. 창조와 구속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석 속에 일하시기 때문에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에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 가능하다. 포이즈레스는 ‘언어, 하나님 중심적 접근’ 이란 책에서 의미, 통제 그리고 임재를 강조한다.

4)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강해설교적 해석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생활의 변화를 위한 성경해석으로 설교에 쓰임받아야 한다. 해석이 설교의 목표에 도달할 때 그 열매가 생산되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의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듯이 성경 해석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될 수 밖에 없다.

5) 계시에 의존된 구원 중심한 해석이다. 계시는 성경이다. 참 구원은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 온다.(정암 박윤선)

## 2. 방법론 (cf. 포이츠레스의 원리와 방법론 p121)

### 단계 1. 기원과 문맥

- a.하나님의 전달자를 이해하라 (인격적 관점)
- b.본문 자체를 이해하라 (규범적 관점)
- c.청중의 상황을 이해하라 (상황적 관점)
- d.하나님의 메시지의 총체를 이해하라.

### 단계 2. 전달과 문맥

a.말을 옮기는 사람을 이해하라: 공식적 전통, 더 폭넓은 하나님의 말씀

b. 본문과 메시지를 읊기는 점을 이해하라 (규범적 관점)- 본문 비평과 해석의 역사가 관련된다)

c. 읊기는 상황을 이해하라 기록의 관심을 좁게 이해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넓게 이해하라.

d. 성경을 통하여 전체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이해하라.

(1) 다른 초점으로 이해하라

a) 그 구절의 이후 사용을 이해하라 (해석적 초점)

b) 그 구절은 성장하는 계시의 체계(성경신학)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하라.

c) 그 구절은 여러 주제와 이슈에 대한 전체 가르침에 얼마나 적절한가? (조직신학과 크리스찬의 생활)

(2) 기독교론적으로 이해하라.

a) 그리스도가 그 구절의 중심이 되기에 지혜와 의와 거룩을 그와 관련시키기에 얼마나 적절한가?

b) 그리스도가 약속과 예언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 구절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

c) 그리스도는 중보자인 선지자로서 어떤 전달의 인격적인 관련을 갖는가?

단계 3. 현대본문

- a.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바를 성경과 조직신학의 더 큰 문맥을 통하여 이해하라.
- b. 하나님에 통제 당하는 것 처럼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라.
- c. 당신이 교통하는 당신의 제능과 능력과 다른 화자와 청중을 이해하라.
- d. 화자와 청중으로서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이해하라.

결론:

하나님의 형상회복 중심한 성경해석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한 해석에 근거를 둔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따른 구절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성취함을 향한다. 해석된 말씀의 선포는 마음, 가정 그리고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이고 부흥의 실상이다.

## VI. 삼위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

### 1. 성부의 형상과 성자의 형상의 관계

성부의 형상과 성자의 형상 그리고 성령의 형상은 서로 연합된 관계를 가진다.

성부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남은 성부와 성자의

일체되심 곧,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온 종속 관계임을 주님이 친히 시사하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 14:9)고 하심은 그 자신이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형상이기 때문이다.(골 1:15)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볼 때 성부를 본다. 그의 사랑을 접한 자는 성부의 사랑의 정도를 알게 되고 그 의를 접한 자는 성부의 의가 어떠함을 알게 된다. 또한 성자의 진실에 접한 자는 성부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부는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려고 피조물을 통하여 보이기를 원하셨으나 죄로 인해 분명히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것을 알 수 없는 어두움에 거할 때, 성자를 친히 보내어 그 자신의 사랑과 신성을 들어내셨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독생자이었고 그의 품 속에 계신 독생자로서 일체가 되신다. (요 1:14)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부를 아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자를 모르고서 성부를 아는 자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성자의 형상은 성부의 형상과 일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바울은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롬 8:28 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함이라고 한 것은 성부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 2. 성령의 형상과 성부의 형상의 관계

에스겔 1:28 에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 (demot kabod adonai)”은 성령의 영광 혹은 성령의 형상을 가리킨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일과 별도로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깊이 결합된 것임을 보인다. 이는 성부의 활동 속에 성자와 성령의 일은 연합과 조화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도 표현한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영이란 표현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곱 눈이 가득하다는 표현이 성령의 형상이 이 땅 위에 나타남을 가리킨다.

### 3. 성자의 형상과 성령의 형상과의 관계

성육신하신 성자가 성령에 대한 증거와 성자 증거를 목적으로 오신 성령의 역할을 살필 때 우리는 성자의 형상이 성령과 그의 일하심으로 나타났고 성령이 일하심으로 모든 사건 속에 성자의 형상을 나타내심을 본다. 요한복음 14-16 장의 주님 고별 설교속에 성자와 성령의 존재론적 연합 관계를 언급하며 동시에 사역적 관계에도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증거한다. (요 14:15-20 요 15:26, 요 16:7-11, 16:13-14)

### 4.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위의 검토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과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독(dok)” 와 카보드(Kabod)“는 모든 것의 무게가 쏠리는 중심이란 뜻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 통제, 능력은 모두 중심 위치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일 때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인 의와 인과 신이 그 중심에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면 회복이란 어떤 것인가? 구속의 과정의 다른 표현인데 회복하면 어디로부터 어디로의 과정을 가진다. 회복전의 상태의 인간은 사탄과 연합되어 죄를 범함으로 사탄화되어 불의, 무자비, 불신실로 떨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한 자신의 부패한 모습이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이나 로마서에 부패한 본성을 말할 때 그 전적 부패함이나 이사야가 말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는 상태는 전혀 가치가 없는 상태 곧 사탄화된 실상을 본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표현되는 지성, 감정, 의지가 모두 사탄화되어 도저히 고칠 수 없어 폐기 처분해야 될 상태를 발견한 것이다. 그러면 무슨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신비이다. 이런 상태의 인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강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이다. 그런 과거의 흔적을 가지면서도 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드신 변화이다. 그런 성품을 기초로 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꾸어 버린 것이 거듭남의 삶이다. 이런 변화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은 개조나 수리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완전히 죽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낳으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사 영생가진 사람이 되게하신 것이다. 이것의 노력이 더해질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시작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사건이다.

결국 삼위 개체의 형상은 서로 일치된다. 이 말은 삼위의 신성은 모두 같은 신성이고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이다. 어느 한 위라도 신성의 부족이 나타나면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은 하나님의 성품의 나타남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나타남으로 말함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양으로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삼위의 역사는 재창조에도 동일하게 일하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게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세상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엡 4:13 절에는 3 가지 윤리적 열매인 거룩함, 진실함 그리고 의로움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나타난 새로운 성품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이 새 성품은 성령이 지배하는 본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 표현했다. 이것을 세상의 도덕적 관계의 삶에 반영된 신성의 나타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계를 통한 신성의 나타남이 죄로 인해 가리워진 것이

거듭난 영혼을 통하여 나타난 것으로서 진실과 거룩과 자비를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영원한 사랑과 정의 혹은 공평 혹은 진실의 나타내심이다.

4. 이 세가지 성품의 관계를 살핌으로서 우리는 세 성품이 하나님 성품의 대표적인 것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사용하는 의, 인, 신의 개념은 마태복음 23:23 절에 근거를 둔 것이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 그리고 공의(공평)와 사랑은 그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42 절에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에베소서 5:8-9 에서 빛의 열매를 설명한 사도의 해석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것을 세 요소로 규정하기를 좋아한 것은 이런 용어를 사용한 주님과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려고 했기 때문이다. 사도 역시 주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의한 것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성품을 중심하여 다른 것을 정리할 때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한 구분을 가지나 절묘한 조화를 표현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거룩, 진리, 의, 이 세 관계를 검토한다.

1) 첫째, **의의 성품** - 의는 하나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 의는

거룩과 통한다. 의에 거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한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의란 뜻이다. 보스는 성경의 의를 4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것을 감안하여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때로는 진실을 논할 때 의라고 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의의 바탕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진실 곧 진리가 없는 의란 가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 정의 그리고 진실의 범주 안에 넣어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칭의의 이슈로 야기된 일부 학자들의 관점에 하나님의 의를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정의하여 칭의의 개념을 구원받은 자에 대한 순간적인 하나님의 법적 선언으로서의 의롭다하심에서 벗어난 성화까지를 포함시키는 것 곧, 심판대 앞에서의 의로운 행위의 실체로 설명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적 신실함이란 언약을 믿고 지킨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의로 규정한 것은 모든 의의 기본이고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의는 진실과 정직과 거룩과 서로 교통함에 사용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넘어서지 못한 의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 올 수 없다고 할 때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에 포함된 의의 수준을 가리킨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이 의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이 의의 자리에 이른 자라면 오직 그 아들뿐

이기에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아들의 의 때문에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를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이르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르침이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의 의만이 구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의에 이르도록 성령이 일하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구원 받은 자의 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자력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루신 공로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그의 의의 자리에서는 있어야 한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개혁자의 표어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믿음의 의로 시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2) 둘째, **인의 성품** - 인이란 자비와 사랑으로 표현된다. 여기 말하는 인은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한 것이다. 사랑이 없는 공허를 생각할 수 없고 공허없는 사랑은 거짓이 된다. 그래서 성경의 공허를 가장 잘 표현 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가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 그 단어 ‘에스플란크니스테(*esplanchnisthe*)’는 죽어가는 새끼 새를 바라보며 안타까워 심장이 터져 죽는 그 어미 새의 심정을 표현 한 것이다. 그런 공허는 최대의 희생이 따름으로 나타난 자발적인 반응

이다. 사실상 이 비유에서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며 그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표현된 긍휼을 가리킨다. 성부의 그 크신 사랑과 성자의 자원적인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서 나온 그 긍휼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 8-9) 라고 말한 바 있다. 알고 보니 율법은 칼로 베듯이 드러나는 분명한 의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그 배후에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에 쌓여 있는 사랑의 성품이 받쳐주는 것이다. 바로 이 긍휼의 범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이 나타 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이다. 어느정도는 모조품적 긍휼을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어두어진 시대이지만 성경의 긍휼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것이 천국의 실재가 나타남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세째, **신의 성품** - 신이란 진실함을 가리키고 앞선 모든 성품의 기초이고 기본이고 뿌리이다. 진실의 역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거짓된 의와 거짓된 거룩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그의 진실하 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진실함은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에서 나온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모두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성이 표현된 것으로 모든 창조와 섭리와 구속과 심판의 일들의 뿌리를 기반으로 둘 때 진실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 진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의 바탕이고 사역의 바탕이 되어야 함은 그의 증거하는 모든 메시지가 진실로 시작하고, 진실로 진행하고, 진실로 마쳐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역자를 다른 말로 진실한 사람(답전 6:11),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답전 3:)라고 말한다. 진실이 없는 율법을 생각할 수 없고, 진실이 없는 복음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 진실함이 성도의 전인의 목표이고 방법이고 결론이다.

그 외에도 신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이 수많은 공유적 속성으로 나타남에 관해 험만 바빙은 그의 개혁주의 교의학 2 권 (하나님과 창조, 4-5 장)에서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 도덕적 속성은 선, 거룩 그리고 의(정의), 셋으로 언급했다. 특히 그는 신실함을 지식, 예지, 중간 지식 그리고 지혜와 함께 지성적 속성으로 다루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가지 요소인 의,인, 신이 하나님의 석성의 대표적 요소로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그 중에 필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셋으로 정리한 것은 이것이 주님이 규정한 사도들의 확신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바로 이 세 성품의 표현인 율법의 더 중한 의,인,신으로 규정한 마 23:23 절에 근거를 두었다.

좀 더 그 의미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42 절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둘로 규정함을 본다. 이것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는 기록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다윗의 시편에는 찬양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그의 영원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조건으로 나타낸다. 이런 개념을 정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창조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우시려는 신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 회복된 형상의 축으로 움직임을 본다. 그 후 복음이 들어온 다음, 주님과 사도들의 관심은 바로 이 형상회복에 있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적 성격의 표현 중 하나이다. 구약 율법의 요구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그대로 연속하여 더 아름답게 표현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하나님의 구속의 중심임을 드러내었을 뿐 아니라 구약보다 더 뚜렷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갔다.

사실상 이 세가지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설명하였으나 그 조화를 이룬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가? 그 그림을, 우리는 인간적 표준에 의한 자화상에 익숙하여 그것에 근거하기를 잘한다. 그래서 성자, 현자, 경건한 사람, 의인 등의 표현을 쓰나 실상 우리는 그 형상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하에 항상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빌 3:12-14)의 모습이 가장 근사치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다. 에스겔이 보여준 네 생물의 모습이나 계시록에 보이는 인자의 모습은 상징으로 나타나지만 그 조화를 잘 보여준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상 에스겔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면 괴물을 그리고 만다. 한 얼굴에 동서남북이 전혀 다른 것, 마치 앙코라 왓트의 정문에 세워진 우상처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하나의 못생긴 형상을 보게 된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 신비한 조화의 요점은 결국 그들이 가진 속성들의 연합을 그릴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가진 성품으로 귀결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바로 이 조화를 이룬 모습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자화상은 송아지처럼 희생하고, 독수리처럼 신령한 세계에 근거를 가지고, 사람처럼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참 사람이고, 사자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지략과 용기를 가진 자화상이 되는데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추구함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그 형상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의인신의 조화는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요약한 것이다.

## 제 4 장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위한 네가지 수단

성경은 이 형상회복 곧,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여러 각도로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심을 보인다. 성경이 나타난 그림 계시나 설명 계시들 속에 네 기둥처럼 세워진 것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 창조와 구속과 섭리와 심판의 사건으로 요약되는 특별계시의 모든 사건들의 축이 주권중심, 말씀중심, 고난중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발견이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연의 수단들을 통하여 그의 역사를 이루셨고 계속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광야교회의 역사적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발견한다. 민수기 21: 21-35 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원에 있을 때 일어난 역사이지만 복음의 빛아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라는 진리를 배울수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걸리는 문제가 많았다. 이런 거침돌 즉, 다툼, 고민, 민생고, 곤고, 좌절 등은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바울의 세계관을 생각하게 한다. 빌 4:12-13 에 그가 빈궁과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로 어디서나 무슨 일에서나 자족하는 삶을 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시혼과 옥을 쳐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곧,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관점에서 관찰해야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란 사실이고, 이런 결정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방적이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언약 관계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무조건적으로 시혼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옥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이 원리는 이 세상에 대한 신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순례길을 다음 세가지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A. **교회 중심주의로 살아야 한다.** -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이다. 이것을 이탈하면 영적 죽음을 가져온다. (창 12:3) (행 7:38) 그 예로, 불뱀 사건은 순례길에 의식주 문제로 불평과 불신앙으로 떨어질 때 그들은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로 일부가 불뱀에 물려 죽임을 당한다. 그 때 뱀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자만은 살게하신다. 이것은 교회를 이탈한 자의 결과가 어떠한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교회를 이탈하려는 육적 충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 현실적 환경을 바로 관리하지 못할 때 교회를 이탈하여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또 하나의 예가 발람사건이다. 그의 경우는 영적 지도자가 돈과 세상의 정욕의 명예의 유혹으로 변절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준다. 마치막에 그의 마음에 교회를

무시하고 이탈하여 가나안 정복 후, 박수이기에 여호수아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모두 다 교회의 존귀함을 무시한 자가 짓는 죄의 두려움을 보인다.

B. **은혜 주의로 살아야 한다.** - 그 다음이 은혜를 중심한 삶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주의(자율주의)는 배격되었다. 시혼과 옥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무엇이 잘나서 선택된 자가 아님을 여호와께서 수차례 말씀해 주셨다. 은혜의 선택임을 강조하셨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계속 가나안까지 긴 40년의 과정이 모두 은혜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 오직 은혜 (Sola gratia)의 원리가 벌써 세워진 것이다. 광야 40년의 의식주 모두가 왜 기적으로 나타났나? 만나가 하늘로서 내리고 메추라기가 동풍으로 몰려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준 것이다. 물이 돌바위를 칠 때 솟어나와 마셨다. 그것이 40년간 그러했다. 모두가 은혜로 됨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곧,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이루기 위한 긴 과정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밝히 들어내신 것이다.

C. **주권주의로 살아야 한다.** 은혜주의는 자연히 주권주의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이 그림 계시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본다. 이 주권주의는 그들이 평생 배워야 할 진리이다. 그래야만 언약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존 후레임은 그의 조직신학의 매 장마다

관점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그가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확신을 주권 신학과 신앙이란 주제로 표현한다. 그래서 세가지 관점-규범적 관점, 실존적 관점 그리고 상황적 관점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에 적용하면 시혼과 옥을 멸하심은 하나님이 정한 규범적 관점이라면, 현재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세를 저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실존적 관점이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야만 하는 상황적 관점에서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건 속에 우리는 네가지 원리가 순환적이고 점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아래 네가지의 수단에 의해 성취되어 가는 것이다.

### 1. 주권(Lordship)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누가 이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가져오는가? 한 마디로 인간과 타협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친히 이루심을 성경은 분명히 계시한다. 원시 복음인 창세기 3:15 절에 “내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탄과의 연합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친히 이루시겠다는 이 원리는 규범적 절대 진리이다. 이 주권주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회복 곧, 구속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존

후레임의 신학의 특징이 주권주의인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래야만 되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여”라는 호칭은 바로 “주님만이 하십니다”는 고백이다.

주권주의가 강조되는 곳에 종됨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것이 선지자와 사도의 체험이고 주님이 가르치신 주제이다.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본 천상 세계에 좌정하신 분, 주님을 보았을 때 그는 즉각 고꾸라졌다. 자기의 실상이 발견되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고 하였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주권자이심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했다. 천사가 운반한 숯이 입에 닿자 곧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은 개인적 체험이나 공적 성격을 갖는 경험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경험을 똑같이 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권적 구원에 대한 자발적인 시인과 응답은 동질의 경험을 가져야 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후에 이사야는 사 57:15 절에 말한대로, 높으신 주께서 가장 가난한 낮은 자를 찾아 오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원리를 말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도인 베드로의 경험과 바울의 다메섹의 경험이나 개인의 영적 슬럼프에서의 경험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낚았을 때 그가 자기가 거룩하신 주님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경험적으로 깨달았을 때였다. 그것으로 그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될 때 고꾸라져 눈이 멀었다. 그의 기독교적 질문, “주여 뉘시나이까?” 라는 고백은 바로 같은 경험인 것이다. 그는 진정한 주를 알게 되고 자신의 종됨을 알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주되심을 주장하시며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임을 보이며 종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사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 윤리임을 주장하셨다. 8 복의 첫 복에 심령의 가난한 상태는 전체 윤리의 기초가 되며 섬기는 자가 지극히 높은 자가 됨을 주장하셨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의 협력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란 바로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아래 나타나는 반응인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사 57:7 절에서 보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빛남을 동시에 강조한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 인간의 구원이 나타남을 보았다. 이는 이사야의 신학의 주제이고 자울 신학의 주제이다. 사 6 장에 나타난 이사야의 체험은 그의 신학과 신앙이 여기에 근거함을

보인다. 그래서 구약의 바울은 이사야이고 신학의 이사야는 바울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다른시대에 살았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을 보았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거나 영광이 나타나거나 그 형상으로의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이 친히 주인되심이 규범적 영역 실존적 영역 그리고 상황적 영역에 나타남을 보인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세계는 언약 성취의 절정 곧 신정이 완성되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고백대로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되리라는 자세가 교회가 취할 기본자세이다.

## 2.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목표에 이른다.

주권으로 이루시는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심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그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한다. 이 특별계시를 통하여 죄인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그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그의 말씀의 역사가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말씀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탄의 형상화된 죄인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 역사의 접촉점은 말씀의 부딪힘이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이 행하나 그것 자체도 말씀을 따른 행함임을 본다.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이고 주님의 능력의 손가락이기 때문이다. 그 때 불의가 의로, 무지비가 자비로, 그리고 불신실이 진실로 바뀌어진다.

사실상 성경의 성격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와 같은 것이다. 말씀의 의,인,신의 기능은 하나님의 의,인,신의 성품과 동질이다. 그래서 성경이 곧 하나님의 형상 자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시편의 기자들의 성경체험주의 신앙은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의 성경체험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가진다. 바울이 딤후 3:16-17 절에서 말한 내용은 바로 성경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목적이며 수단임을 강조한 것이다.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영혼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의,인,신의 성품으로 화해지는 것이다.

특히 시편 119 편이 보여주는 성경체험주의의 간증은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이다. 그 중 119 편에 나타난 시인의 체험을 살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성경이 깨달아질 때 되어진다는 성경의 강조를 발견하게 된다.

## 1) 복된 길을 가자 (시 119:1-8)

말씀을 예찬하는 시편 119 편은 말씀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항상 점검받을 거울인 이유는 이것이 복된 길임을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이다. 22 자음의 각 철자로 시작하여 8 절씩 22 연을 이룬 본 알파벳 시편은 성경체험주의자의 샘플이며 성경 자체의 신학과 신앙을 소상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계시이다. 그 중 알렐요로 시작하는 첫 연은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 마치 시편 1 편이 150 편의 서론인 것처럼 시 119:1-8 절은 본편의 서론으로서 복의 실체를 보여준다. 무엇인가?

첫째, 성경을 배우는 자가 복되다. (7) “여호와 율법”, “주의 도”, “주의 율례”, “주의 의로운 도”,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표현된 성경을 마음으로 배우며 주의하는 일은 음식 먹는 것과 같다. 말씀 속에 숨어있는 영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착념하는 자만이 복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의 구원성, 권위성 그리고 충족성의 원리는 성경이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경험 속에 종합 비타민처럼 녹아 있다. 이스라엘 광야의 만나처럼 성경의 계시가 그리스도인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증거가 사실이 된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어느 사건을 만날 때마다 성도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며 어떤 것으로 대답하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빛으로 삼아 달려간다. 어두움 속의 빛처럼 성경의 세미한 소리가 신자가 받은 복의 최종 정착지이다.

둘째, 성경을 지키는 자가 복된다. (1) 성경의 실상을 알게 되면 이미 자기 것으로 삼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있다. 성경을 잘 듣기만 하면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로 나가기 때문이고(눅 8:15) 말씀의 능력이 일하기 때문이다. (히 4:12) 우리의 새롭고 기이한 모든 일은 성경이 속에서 일할 때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지식이나 감정으로 축척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전인의 순종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계시가 주어졌고 그 계시가 심층에까지 그대로 정착되고 심지어 계시화 되기를 바란다. 성경화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골자이다. 성경화 되는 삶이 복이고 모든 활동의 최종 목표이다.

셋째, 성경 앞에 설 때 겸손을 배운다. (8)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추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절규를 하게 된다. 영안이 뜨여져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가슴이 뜨겁고, 시원하고, 잔잔하고 소망에 넘치는 변화는 모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체험이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는 발견이 일어나기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진정 복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3 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다. 그 위에는 자동적으로 천국이 임한다. 성령 안에서의 의평강 그리고 희락을 알게 된다. 참 구원의 시작이 이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면 구원의 완성을 향하는 일도 여전히 이 마음이다. 만일 시작이 그렇지 않았다면 주께서 그 자리로 들어오도록 그 경험에 초점을 맞추신다. 겸손할 때 구원을 받고 겸손한 마음에 계속 하늘의 은혜가 공급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마귀가 노리는 최대의 목표는 바로 이 마음을 잃게 하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은 하늘 은혜의 작은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함을 즐긴다. 그 약함은 금목주의자의 극기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빛 아래서의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접한 자의 반응인 것이다. 여러 고난 속에서 사역한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통해 이 마음을 유지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찌르는 남은가시로 자신의 약함과 부족과 무력을 즐거워하며 거기서 나오는 하늘의 위로의 충족을 체험하여 연약이 도리에 큰 일을 하게하는 도구임을 체험한 것이다. 이 겸손은 계시 앞에 바로 설 때 일어난다.

## 2) 말씀에 대한 사모심 (시 119:25-32)

경건한 시인은 성경을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하여 대함 보다 기록된 말씀을 하늘에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사모하였다. (시 119:25-32) 흔히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걸 말씀 즉, 사상을 문자로 표현한 것을 로고스로 보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영혼에 주시는 말씀을 소위, 레마로 구분하여 전자의 권위가 후자 보다 약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원론의 연장선을 그려보면 신정통주의 성경관을 만나게 된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에 맞서 나타난 빠르트의 성경관은 겉보기에 초자연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다른 형태의 자유주의 성경관을 벗어나질 못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 성경관은 인간언어로 된 성경 66 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수단을 통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비로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를 매우 강조하는 듯하나 성경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 천당과 지옥을 말하나 실제로 믿지 않고 성령을 한낱 힘 정도로 생각하는 등 많은 점에서 사도의 성경관과 다르다. 그래서 스위치 신학 혹은 위기 신학으로 불리워진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관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 성경관의 그릇 됨은 본 시편의 간증에서 쉽게 알려진다. 그의 말씀의 사모심은 우리에게 참된 성경관을 보여준다.

첫째, 그는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했다.(25) 영혼이 진토에 붙은 상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절대 가난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리킨다. (마 5:3) 성경을 대할 때 배고픈 결인이 음식을 받아먹는 심정으로 입을 넓게 열고 사모한다. 이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임한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기록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실제 양식으로 받았다.

둘째, 그는 영적 조명을 구했다.(27) 성경을 대할 때 자기 눈을 열어달라는 목적이 하나님과 그의 성품을 알고 그대로 살기 원했기 때문이다. 거듭남이 영안의 눈 뜨임이라면 조명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눈 뜨임이다. (엡 1:17-18)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계시의 영 곧, 성령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했다. 이것은 기록된 성경을 대할 때 성령의 역사로 진리가 알려지는 확신에서 나온 간구이다. 기록된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임을 인정하고 성경 앞에 설 때마다 이런 간구가 일어나야 한다.

셋째, 그리고 그는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31) 기록된 성경 구절에 자기 양심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진실한 수고를 드리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세계를 본 시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계시)에 자기 영혼의 닻줄을 내려 풍랑이 일어나든, 잔잔하든 하늘의 부요를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이유가 죄인이 쉽게 접하게 하심같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고 순종하도록 하기위하여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가장 가까이 찾아오신 것이다.

풍랑이 일어나는 새해에도 가장 안전한 포구인 성경으로 달려가야 한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

### 3) 말씀에서 나온 유익 (시 119:41-48)

성경을 진실되이 접하는 자는 어떤 유익을 받는가? 시 119:41-48 에 보면 성경을 통해 기이한 유익을 체험한 증거가 나온다.

첫째, 사랑의 체험(41) -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이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이기때 자신을 사랑으로 나타내심은 자연스럽다. 사랑은 그의 공유적 성품이나 비공유적 성품을 요약한 성품이다. 사랑 속에 의와 진실과 긍휼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고전 13 장 참조)

그 사랑이 말씀의 기초이며 중심이며 표현이다. 자기 백성으로 쉽게 접하여 그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최대 사랑 행위인 구속을 믿음으로 접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처럼 성경을 묵상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 속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눈이 뜨여지고 그 사랑의 세계를 오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으로 말한 바 있다. 말씀을 진실하게 받는 자는 자연히 그 사랑에 접하게 된다. 사랑의 언어로 되어있기에 성경을 배우고 그 사상에 나의 생각을 굴복시킨 자는 풍성한 사랑의 체험을 하게 된다.

둘째, 구원의 체험(41) - 또, 그 사랑은 구원으로도 표현된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성경을 붙들고 거기에 숨는 것이다. 성경이 주는 구원이 완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난 날에 그의 말씀에 숨기를 잘해야 한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박해와 큰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왕상 18:1)는 약속을 믿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일곱 번이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부르짖었다. 그의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큰 역사를 나타냈다. (약 5:17-18) 말씀에 숨어 자기 생각의 중심에 두고 그를 믿을 때 구체적인 구원이 일어난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작은 집안에 모인 교회는 그의 구원을 구했다. 말씀 뒤에 숨고 두려움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창고가 풀리고 문이 절로 열리는 극적인 구원을 맛보았다. 말씀 뒤에 숨은 자는 반드시 보장을 받았고 어떤 자리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어난다.

셋째, 자유의 체험(48)-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복음은 모든 것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한다. 얽매이기 쉬운 허물과 죄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말씀이란 것이다. 그 자유를 누릴 때 담대함이 생긴다. 사도들의 담력은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기억되어 깨달아짐으로 생겼다. 말씀을 깨달은 그들은 산헤드린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렸고 그 응답으로 담력있는 전도자가 되었다. 모세처럼 아침마다 말씀에 숨겨진 영력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시 90:14)

#### 4) 기이한 말씀 (시 129:129-136)

하나님 나라 왕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요 모사(Wonderful counselor) (사 9:6)임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는가? 시 119:129-136 절에서 세 가지 이유를 찾는다.

첫째, 생명의 빛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130) 생명을 빛으로 비유한 이 말은 말씀의 영향이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이다. 빛이 비추일 때 밝아지고 빛이 있을 때 따스해지고 치료가 되고 생명이 공급되듯이 성경의 말씀은 창조하며 다스리며 붙드시며 구원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기이한 힘이 있다. 그래서 6 일간의 창조 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의 선포가 창조의 걸작을 만드는 유일한 무기였고 창조 후의 하나님의 경륜대로 되는 모든 자연 법칙과 질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가며 모든 구원은 말씀이 떨어지고 거기에 믿음을 화합할 때 생긴 역사였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열병은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는 선언을 그가 믿고 갔을 때 그와 동시에 실제로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났다. 정확한 시간, 오후 1 시에 말씀하시자 그 시간에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는 그에게 치료의 광선이 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는 성경이

그런 일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기에 신자는 성경의 모든 낱말과 문맥과 사상을 영생으로 받는다. (요 12::50) 그와 더불어 신자는 말씀을 여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열린 말씀을 통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는다. 성령의 기록은 주님 자신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시를 기록하신 분이 계시를 여실 때 알려지고 그 계시가 생명을 살어나게 하고 능력을 공급하여 영혼을 강성하게 만든다. 그 깨달음은 진리 지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한다. 그러므로 계시 받아 구원받은 신자는 계시의 조명 아래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생명의 빛 안에서 사는 생활이다.

둘째, 영혼의 양식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131) 광야 이스라엘에게 매일 만나를 주어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게 한 사건은 성경을 먹고 사는 신자의 삶을 보여준 그림 계시이다.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광야의 만나 먹는 일로 비유하여 성경이 영혼의 양식됨을 분명히 하셨다. 이것은 풍성한 생명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떡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일상의 높낮이 생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모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신 8:3) 이것은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도록 한 기본적인 말씀이었다. (마 4:4) 성경을 지금주시는 하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하늘의 부요가 임한다.

셋째,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35) 생명의 빛, 생명의 양식의 비유는 결국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나가게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단지 모세와 엘리야는 그 현상과 임재를 체험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접한다. 그것처럼 기이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가는 것이다. 엠마오의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진 체험은 그들이 주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은 그의 얼굴을 볼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민 6:22-26) 성경 앞에 기이한 말씀 체험을 기대하며 진지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 기이한 말씀은 기이하신 주께로 나오기에 기이한 일을 이룬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향사회복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부패한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그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신령한 도의 젖 곧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의,인,신의 형상으로 바꾸어진다.

### 3.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목표에 이른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이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일하심은 당연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남은 자연스럽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이다. 말씀으로 정돈되지 못한 성령의 역사는 육 주의로 떨어진다.

그래서 고금을 통하여 언제나 성령의 역사에 교회가 주목했다. 그 예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 중,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소아시아 사역에서 사도 바울은 구라파로 옮기는 전환점을 가진 것은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창조에 시작된 하나님의 영의 나타나심은 족장시대에도 침묵 속에 일하셨으며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도 때로는 은말하게, 때로는 수많은 상징주의 형태로, 자기 백성을 따라 일하셨다. 바울이 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항상 따랐다는 표현은 르비딤만의 제한된 사건이 아니다. 그것 외에도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 개인 개인, 사건, 사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일하셨다는 해석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일하셨다는 것이다. 그 중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가리키시고 인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역할을 우리는 성령의 역할에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그리스도의 성취한 구속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는 것이다.

필자는 에베소서의 성령론을 다름으로 하나님의 형상회복에

성령의 역할을 생각한다.

### 1) 신령한 복 (엡 1:1-14)

“신령한 복”이란 영어로 spiritual blessing (유로기아 푸뉴마티케)이란 말인데 육적 복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모든 복의 핵심적 복이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는 어느 날 삼층천 안에 있는 교회가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하고 울렁거리는 감동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여 이 편지를 쓴다. 문안 하자 즉시 찬송하는 것을 보면(1-3) 그의 마음에 넘치는 감격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가 찬송과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때문이었다.

첫째, 그 복은 그리스도 안의 구속을 가리킨다. 1:3 절에 사도가 찬송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으로 요약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임했다”는 사실이다. “주었으되(has blessed-현재완료)”라고 했다.(요 5:24) 모든 육적 복의 중심이요 근원이 바로 신령한 복임을 전제한 것이다. 사도는 그 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그 실체를 설명한다. 그 복은 어떤 것인가? 복이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자신은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고 에베소 교인들도 우상 도시에서 믿음 지키기가 힘들었지만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redemption) 때문이었다.

둘째. 그 복은 어떻게 시작되어 교회 소유가 되었는가? 사도는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여 이루신 구속이 어떠한을 보여준다. 4-6 절에 성부 하나님의 구속계획, 7-10 절에 성자 예수님의 구속성취, 그리고 11-14 절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적용을 설명한다. (1) 성부가 계획하신 구속이다. 창세전 자기 백성의 구속을 심중에 두고 이것을 이루시려고 일부를 선택하고 그들의 일생과 영원을 예지하고 예정하셨다고 말한다. (5 절) (2) 성자의 성취하심, 구속은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즉시 실행되어졌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가 정한 때에 오셔서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얻을 것을 예언하셨다. (창 3:15)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신 것이다. (3) 성령의 적용하심, 사도는 그 복이 교회 안에 있다는 더 놀라운 사실을 본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시는 역사를 본 것이다. 보증수표 같은 확증으로 아버지의 것을 보증하신 것이며 이 구속의 보화를 알고 즐기라고 조명하신다.

## 2) 성령의 조명 (엡 1:15-23)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체험 되려면 성경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눈 뜨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경을 생명으로, 양식으로, 유일한 방법으로, 유일한 진리로 믿도록 우리의 영안을 뜨는 일에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첫째, 무엇이 성령의 조명인가? 성령의 조명은 성령의 비추임 혹은 성경을 깨닫는 것으로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회개할 때, 성경을 연구하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 초자연적인 기이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여지는 것이다.

둘째, 왜 성령은 조명하시는가? 알게 하시려고 임하신다. 요 14-16 장에 성령에 관한 주님의 예언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1)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2) 영원히 내주하신 것이고 3) 우리를 교정하신다는 것이다. 공통된 목적은 알게 하시는 것이다. 안다는 “기노스코”와 “야다”는 부부가 동침함으로 아는 경험적 지식을 가리킨다. 성령이 오실 때 신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실체를 알게 된다. 그래서 사도는 네 가지를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1)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요 17:3) 평생 신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타락한다. (2) 부르심의 소망을 알며 - 부르심의 소망이란 부르신 목적을 가리킨다. 사명을 알게 해 달라는 것이다. (3)기업의 풍성함을 알며 -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아는 것이다. 또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 때 우리는 부요자로 사는 것이다. (4) 부활의 강력을 알게 하는 것이다. 사명과 밀천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활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죽은 시신 속에 역사하여 살게 하시고 만물의 주요 교회의 머리로서 승천하여 계시게 된 것이다. 우리는 덩달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부활의 강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에스라 때에 수문 앞 광장에서 모두 모여 성경을 읽고, 듣는 중 성령의 조명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울고 금식하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났다. 성령의 조명이 많을 때 개인은 새로워지고 교회는 부흥된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며 성령의 눈 뜨임이 일어나도록 성경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 3) 하나님의 형상 회복 (엡 3:14-21)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라고 일컫는 에베소서를 통해 세상에 있는 완성된 교회는 한마디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의 두번째 기도 속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했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무릎을 꿇은 것은 진실하다는 것이다. 실재를 느끼지 못하면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다. 눈에 안 보이는데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다.

둘째,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16-19 절에 세 가지 제목이 들어있다. 첫 제목,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했다.(16) 속사람이란 거듭난 영혼, 거듭난 자의 마음 (영혼, inner being)이다. 이 마음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회복된 상태이다. 어떻게 강해지나? 그의 영광의

풍성과 연결되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임할 때 강해진다.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한다. 이 “능력(두나미스)”이란 다이내마이트와 같은 것이면서 불과 물 같은 능력이다. 둘째 제목은 확신을 달라는 기도이다. 17 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기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또 다시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주님 대접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심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다. 요 1:12의 영접은 했는데 계 3:20에서 처럼 주님으로 영접을 안 하고 고집 피울 때가 우리에게 많다. 셋째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17 하-19 초)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으로 요약된다. 그 사랑을 알고 알게 하는 일에 열심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다. 바울은 교회를 나무와 건물로 비유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 마음의 뿌리이고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사랑의 높이 너비 깊이 길이가 무한대이다. 이 사랑이 신자의 삶을 지배하기를 구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며 교회의 모든 활동의 목표이며 역사의 마지막 목표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한 모습이다.

#### 4) 에베소 교회의 부흥 (행 19:2)

바울의 3 차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중심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 19 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 부흥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열매로 마치는 또 다른 오순절의 역사였다. 일찍이 마가 다락방에서, 핏박 받는 현장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반복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소원한 로마교회의 부흥을 통한 세계 모든 민족의 부흥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그 후 초대교회, 종교 개혁자들, 영국의 청교도들, 프랑스의 위그노, 네델란드 거지들, 미국 대 각성운동, 1907 년도 한 국교회의 부흥은 모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양한 형태로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에베소 교회 부흥은 어떤 것인가?

첫째. **성령을 받음으로 일어난 부흥이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다가 12 교인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했다.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2) 일찍이 율법에 능한 아볼로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에 관하여만 알고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 그 때 바울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라 지적하면서 그를 믿으라고 권했고 겸손히 물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12 사람 모두가 방언과 예언을 했다. (6-7)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란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성령을 받음

로 시작된 부흥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었다. 성령에 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으나 성경에 근거하여 주로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1) 성령세례를 중생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개혁주의자), 2) 성령세례와 중생은 별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오 순절주의) 3) 저자는 절충안인 성령세례와 중생을 같은 사건으로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의 세례가 성화와 사역을 위해 주어진다고 믿는다. 단회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믿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평양신학교의 성령관이며, 정암 박윤선 박사님 성령관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부흥을 위하여 성경적 성령관을 강조한 이유는 부흥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만 안다면 그는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 정보 지식과 체험적 실체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 믿어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회개하고 믿는 증거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언과 방언이 없다 해서 성령 받은 것을 의심할 수는 없다. 문제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진다. 마태복음 5 장에 나오는 8 복은 모두 성령 받은 자만이 맺는 열매이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십

자가 지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 2:17-21 절에 나온 요엘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인 속에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있다. 성령을 받을 때 이 놀라운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란다.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한다. 성령을 받으면 에덴의 교제가 회복되며 주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엡 5:18 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적, 외적, 개인에서 사회에까지 믿음, 감사, 찬양, 사랑, 복종의 삶이 열매로 나타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성령은 그 자신이 복이시며(1:3) 인치시며(1:13) 지혜와 계시하시며(17) 아버지께 나가게 하시고(2:18) 성전으로 지어져가게 하시고(2:22)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며(16) 하나 되게 하시고(4:3) 거룩하게 하시고(4:30)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5:18) 말씀을 사용하시고 (6:17) 무시로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무궁한 능력과 자원을 가진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둘째. 말씀을 받음으로 일어난 부흥이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말씀을 받는 일에 열심을 가졌다. 이미 말씀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4-5) 은혜를 체험한 후 어떻게 했는가? 8-10 절에 보니 바울은 에베 소에서 말씀사역을 시작하여 2년 3개월간 헌신했다. 그 영향으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10) 그 여파는 속속들이 부흥이 일어나 말씀이 대접을 받는 사회로 변하게 된 것이다. (20)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로마까지 불을 붙인 것처럼 보여진다. (21-22)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듣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의 말씀사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간: 3 개월은 회당에서 (8), 2 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10) “날마다 가르쳤다” 2) 무엇: 하나님나라에 대한 강론 (10)을 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아직 오지 않았다. (Already & not yet) 그리고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의 삶이다. 3)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했다. 행 20:21 회개와 믿음으로 행 20:19 모든 겹손과 눈물로, 행 20: 19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행 20:20 말씀에 붙들어 매는 일을 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나타났다. 바울은 오랜 기간 성경을 가르쳐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했다. 성령으로 시작한 부흥은 성경을 깨달아야만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in), 함께(with), 통해(through) 일하기 때문이다. 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사역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1)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갈라디아 이단)

2)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다. (골 2:7)

3) 견고한 신앙을 통한 구원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딤후 3:16-18)

Calvinism 은 메마른 말씀 운동이 아니다. 성령의 겹으로서의 말씀운동이다. 성경공부 한 후에도 감격이 없다면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20 장에 나온 바울 사역을 정리하면 그 부흥은 철저히 성경을 배우는데 있음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 1) 부흥의 목표 - 하나님의 형상회복, 2) 부흥의 방법 - 성경의 권위 = 하나님의 권위 (32) 로 믿고 말씀에 붙들어 매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인 회개와 믿음 (21) 을 전했다. 3) 부흥의 도구 - 그 자신이 겸손과 오래 참음 (31) 의 본을 나타낸 것이다. 성령이 세운 충성된 일꾼 곧 감독들 (24,28) 을 세웠다. (33-34) 4) 부흥의 현장 - 외적 내적으로 혼란과 혼돈된 고난이 있는 현장이었다.

셋째, **은혜가 물결치는 부흥이다.** 베뢰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정말 성경을 살피는 일련의 과정은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 때 성령이 능력으로 일하셔서 기적과 능력이 현장에 나타났다. 1) 질병이 치료되었다. (11) 바울의 손수건과 베드로의 그림자만 접촉해도 난치병의 치료가 일어났다. 2) 귀신이 도망갔다. (11) 3) 두려움 (경외심)이 생

졌다. (17) 4) 회개운동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다. (18-19) 은 오만 되는 책을 불사르는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생겼다. 5) 말씀이 흥왕하고 권위를 얻었다. (20) 성경공부, 은혜와 진실이 삶을 지배했다.

진정한 부흥은 가정, 직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다. 사도행전 2 장에 나타난 오순절 부흥의 역사는 점점 더 이방 지역에 까지 파격적으로 일어났던 것과 같다. 이것이 16 세기 말에서 17 세기초의 청교도 부흥이었다. 역사의 자취를 남긴 신앙의 거인인 그들은 성경에 대한 열정 (Rogers), 예언자로 통한 Welch, Baxter 같은 부흥 일꾼들이 생겨나게 했다. 그들은 모두 이런 긴장을 잘 알고 거룩한 슬픔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었다. 1907 년 한국교회의 부흥도 하디선교사의 가슴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의료 선교사가 변해 부흥사가 되었다고 전한다.

**결론:**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현대 교회의 이상적 모델이다. 성령이 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일어났고, 마귀가 도망가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 부흥은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자신 속에서 부터 이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특별참조: 에베소서의 성령론**

1. **성령의 능력 (엡 5:15-21)** - 산상보훈의 8 복이 세상 복과는 복 받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보았다. 8 복의 마음의 변화는 자기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길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확신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18) 고 명령한다.

첫째,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나? 하이티가 지진으로 곤경을 당하자 다른 나라가 즉시 도와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신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구실을 하며 모든 방면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모든 활동의 원동력인 것이다.

둘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본문 19-21 절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마음이 변화된 모습이다. (19-20)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고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게 된다. 이것은 마음에 성령이 일하시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개인의 심령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찬송 하나? 노래하나? 감사하나?”를 자문하면 자신의 상태를 금방 알게 된다.

세째, 이웃관계의 변화이다. 21 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다. 모든 방면에 그리스도를 중심한 사랑과 복종이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다. 긍휼, 청결, 화평 그리고 고난을 참는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8 복 후반부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이웃관계에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으로 충만하여 권능으로 늘 새로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네째,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가? 성령의 권능의 필요성과 성령의 열매를 안 우리는 이제 그 권능을 받기위하여 사도의 방법을 잘 배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1. 성령과 성령 충만의 의미를 이해하며 2. 성령이 싫어하시는 죄를 회개하며 (행 2:38) 3. 믿음으로 갈망해야한다. 시간을 내서 항상 구해야 한다. (마 5:6) 주리고 목마름으로 구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심령, 가정, 생업, 재난 문제가 해결된다. 고통의 때에 성령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

**2. 성령의 보증 (엡 1:13-14)**-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 없이 교회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 에베소서에서 성령이란 표현이 한 13 번 정도 나온다. 성령의 하시는 일과 그의 속성이 달리 나타난 것을 보았다. 성령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때에 우리 신앙에 성령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사모함으로 여러 가지 유익을 얻는다. 특히 개혁주의는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시작도 진행도 못하고 목표에 바로 골인할 수 없다. 전체가 성령의 역사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에 관해 무엇을 배우는가? 거룩한 영, 약속의 성령, 인 치시는 성령을 발견한다. 그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구속 경륜과 성취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인치심이다. 도장 치듯이 구속받은 자에게 천국 마크를 붙이시는 것과 같다. 신자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여기 “그 안에서”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일하신 것이다. 성령과 성자는 일체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온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분수령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자이며 구속받은 자이다. 성령이 다양한 사람들을 결속시키신다. (요 15:5)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가? 구원의 복음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이고 성경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 진리를 아는 자가 근본을 아는 자이고 모든 진리를 알게 된다. 복, 창조, 세상, 고난, 생애, 죽음, 영원 등

복음을 믿을 때 무엇을 받는가? 구원을 받는다. 죄로부터의 구출 곧 죄사함이다. 중생 회개 믿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된다. 신분이 변하고 삶 자체가 변한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슨 뜻인가? 1) 구원의 보증(down payment) (고전 12:13) - 구원받은 자의 보증금이다. 성령은

보증자로 오셨다. 2) 성령의 능력의 세례(the outpouring of Spirit) (벧전 1:8) - 청교도 학자들은 이것을 성령의 능력의 부으심으로 믿기를 좋아한다. 로이드 존즈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들은 이미 믿어 성령 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을 말한 것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이 둘을 동시에 믿는다. 성령이 구원을 받게 하는 중생과 그 능력의 성장이 계속 일어나도록 성화와 사역을 위해 특별하게 부여되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진행형이다. 문제는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불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속의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주시는 확증 위에서 더 풍성한 새로운 세계를 갈구하기 원한다. 로마교인과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슨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며 받았음을 감사하는 일이다. 믿고 나가면 성령은 도우신다.

**3. 지혜의 성령 (엡 1:17)** - 보증이 되는 성령의 역할이 정적이라면 지혜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동적이다. 눈 뜨임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삶을 위해 수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성령은 시시 때때로 조명하심으로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는 경외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해 주신다. 세상이

너무 악하여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도의 기도 속에 성령의 지혜를 구한 일이 왜 중요한가?

이미 받은 것을 파악하고 아는 것이 은혜이다. 그 기반으로 더 풍성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만일 이미 받은 것을 모르고 구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동이고 큰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 범사의 감사 생활은 언제나 이미 받은 것을 알 때 일어나는 경험이다. (예: 예수님의 감사기도,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서의 감사기도, 야베스의 믿음의 기도) 성령은 눈을 열어 이것을 알게 하신다. 엡 1:17 절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는 기도이다. 평범한 기도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이 집중할 기도 제목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생활의 궁극 목표이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진다.

그 때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1:2, 3:15 참조) 아버지로 묘사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신자의 아버지이다. 부자 관계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생명을 나누는 아버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임한다. 탕자의 회복은 아버지 관계의 회복이었고 첫째아들의 타락은 아버지관계보다 상전 관계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의 명칭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 말이다.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 이 둘은 서로 통한다. 계시가 있을 때 지혜가 생긴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여호와 경외를 핵심으로 한 진리의 적용을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마 11 장의 계시 받은 자는 성부와 성자의 허락을 통해야만 한다.

에베소 교우들에게 왜 성령을 주시도록 구했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지식이 목적이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일이고 여기서 모든 일이 파생된다. 신자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끄신다. 또한 18 절에 나온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일과 성령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계시와 조명은 어떤 차이인가? 계시는 여신다는 뜻이고 계시는 성경이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빛을 얻는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빛이 온다. 시편 19 편의 성격이 계시의 속성이다. 성령은 이 계시를 구체적으로 열어주신다.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순종할 때 배워진다. 마음이 밝은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이 많아서 그러하다. 성령의 조명이 충만할 때 생명을 알게 되고 자유를 알게 되고 확신과 소망이 생긴다. 성령의 조명을 받기위해 성경 앞에 바로 서야하고 기도예 시간을 드려야 하며 회개와 감사로 일관하며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

**4. 연합의 성령 (엡 2:18)** - 성령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다 마침내 성령으로 구원을 완성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이다. 연합을 무너뜨리는 많은 문제로 고통하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반드시 연합을 이룬다.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은 놀라운 지혜로서 갈 길을 밝혀 주실 뿐 아니라 한 영과 한 몸을 이루어 보좌 앞에 서게 하신다. 이 연합은 시온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된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의 연합으로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5. 성전을 세우시는 성령 (엡 2:22)** -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은 거룩함이 기본이다. 창조, 예뎐, 제단, 성막, 성지, 그리고 지성소의 거룩함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다. 이것이 교회이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정한 과정이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개인에게 적용하여 거룩치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제하시고 하나님 중심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이다. 한 절을 중심하여 성령의 거룩케 하심이 어떠한 지를 생각한다.

**6. 나타내시는 영 (엡 3:5)** - 에베소서 3:5 에 “나타내시는 성령”이 나온다. 무엇을 누구에게 나타내는가? (1)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란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란 뜻이다. (마 11:27) 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나타내시고 그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초석이다. (2:20) 계시가 교회의 중심이고 원천이고

기초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 계시이다. 그것을 열어주심으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성소로 자라간다. 성령은 교회를 위하여 영원히 조명하시고 나타내시고 지속시키시는 계시의 영이시다.

**7. 강하게 하시는 성령 (엡 3:16)** - 에베소서 3:16 에 “강하게 하시는 성령”이 나온다. 성령은 무엇을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가? (1)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속사람이란 거듭난 영혼, 마음을 가리킨다. 새 생명의 이식인 증생은 전적인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이 역사하기 전 우리 영은 악령이 지배하는 어두움이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여 아무 소망이 없었고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거역하며 항상 진노의 떡구름이 머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순종을 전혀 할 수 없는 영적 사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었다. 그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영혼이 살아난다. 살아난 그 영혼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한다. (2) 성령의 부으심으로 강건하게 된다. 성령은 한량없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8.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엡 4:3)** - 성령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시작이며 목표이다. 연합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이다. 성령이 죽은 영에 임하여 새 생명을 이식하여 영적부활을 일으킴으로 거듭

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영원히 주고받는 영적 교통의 기능을 갖게 한다. 이 연합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사건이다. 그 연합은 모든 방면에서 구체화되는 것이지만 특히,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아뢰는 친밀한 교제의 연합으로 자라나게 한다. 그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연합이 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다.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이다.

**9. 새사람으로 빚으시는 성령** (엡 4:22-25) -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거하는 사람으로 마귀의 손아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 풍습을 삶의 표준으로 삼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가 성령을 받음으로 새사람이 된다. 이것을 중생 혹은, 새로 태어남 이라고 말한다. 새사람이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영생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사람이 모든 방면에 새로움으로 빚어지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차 새로워지게 된다.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라는 고백처럼 점진적인 새로움의 노선에 들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때 성령의 전적인 역할이 따른다. 새사람의 세 가지 특성 즉,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성령이 빚으신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성품의 요약이며 성경의 본질이며 (마 23:23) 교회에 나타날 마지막 형상이며 새사람의 특성이다.

10. **성령의 인 치심** (엡 4:30) - 사도는 성령의 도장을 받은 구속을 생각했다. 이것은 엡 1:13 절에 나온 인 치심과 같은 것이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구속의 보증금 같은 담보물을 가리킨다. 카이퍼가 생각한대로 오순절 사건은 저수지와 같이 교회에 단번에 임하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개인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하는 단회성을 강조한 말이다. 다른 하나는 청교도 현자들이 취한 확신을 가리킨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의 세례, 성령의 확증 그리고 성령 충만 등이라 했다. 그 요점은 사역과 성화를 위하여 성령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성령이 임할 때 생기는 선물로 보았다. 이 둘은 성령 부으심의 양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분명한 것은 성령은 큰 확신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11. **성령의 검** (엡 6:17) -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다.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무기인 것은 주님이 친히 마귀를 응수할 때 본을 보이셨다. 성령이 검으로 사용하는 말씀이란 적용된 진리를 가리킨다. 그 상황의 문제에 꼭 맞는 진리가 성령의 검이란 것이다. 검으로 찢러 쪼개고 분별하듯이 성령은 성경을 마음에 꼭 맞도록 적용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지

혜를 잘 사용하여 방어하고 공격하여 마귀의 아지트를 파하고 신앙의 고지를 탈환하기를 원했다.

### 특별참조 - 약속된 오순절 사건 (요엘 2: 28-32)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서론:

우리는 엄청난 자원을 준비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받아야 한다. 그 자원은 무엇인가? 성령의 부으심이다.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요엘 선지자는 말일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이다. 이 날을 수롭바 벨, 사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제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차 올 성령의 큰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리어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신대로 종말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인 것이다. 베드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의아해 하는 군중을 향해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의 예언을 살펴 봄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자원인 것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

어떤 약속인가?

**첫째, 성령을 부으시는 약속이다.**

28 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요엘이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황충이를 보내어 심판하여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 때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다. 그 때에,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같은 일은 종말시대를 가리킨다. 베드로가 지적한대로 그 날은 오순절날이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후 성령 강림을 가리킨다.

1) 언제? 재림 직전에 부으신다. 추수를 위하여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이다. 약속이다. 약속은 성취 되기로 되어있다. 그래서 사도는 모두 개인적, 교회적으로 모두 명령형으로 조건을 제시한다. **베드로 경우**, (행 2:38-39)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바울의 경우**(엡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한의 경우**, 성령의 기름 부음(요일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 어떻게? 부으신다. 이것은 강력한 역사를 포함한 것이다. 기름붓는 것처럼 붓겠다는 것이다. 구약에도 부으셨다. 신약은 더 큰 것으로 부으신다고 했다.

3) 내 영- 하나님의 영, (창 1:2) 창조, 섭리, 구원, 심판, 일곱 영,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강력하게 일하신다.

4) 누구에게? 만민이라 했다 여기 만민은 “온 세계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가리킨다. 범세계적 구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고넬료 집회 이후로 그 장벽이 깨지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오는 자들에게 이 영이 부어진다는 약속이다. 그림자로 보여진 성령의 역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주시겠다는 것이다. 한국, 미국, 캄보디아 다른 나라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 **둘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영은 능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적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세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예언, 환상, 꿈을 가지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언이다. 이것은 말씀의 선포를 가리킨다. 성경을 전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 선교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가르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간다. 이 때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말씀 선포에 있어야 하고 성령이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이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다 그런 것이다. 주의 일이란 바로 이것이다. 오순절의 역사는 말씀 운동이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룩케되고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란 이 마음이 말씀을 접할 때 되는 것이다. 말씀

이 의이고 공홀이고 진실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6- 15 절에 십자가가 이 모든 욕을 못 박고 구속을 이루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 생활의 모습은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생활로 나타난다. 그 때 어두운 곳에 빛이 발하고 지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것이 필요하다.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긴다면 골동품처럼 되어 버린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도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부으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다.

**세째, 부르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는다.**

어떻게 이 은혜를 받는가? 부르기만 하면 된다. 구원 속에는 이 약속이 포함된 것이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특별참조 - 내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 (요 7: 38-44)**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서론:

요한복음 7 장은 장막절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으로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명령에서 우리의 관심은 내 속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나는가에 있다.

**첫째, 생수의 강이란 어떤 것인가?** 39 절에 주님이 친히 생수의 강이 속에서 흘러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 생수란 어떤 것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 39 절에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광받으신 후에 오는 사건임을 분명히 암시한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조금 후에 보지 못하나 조금 후에 다시 보리라는 예언대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나타날 경험으로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연합으로서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기이한 경험을 가리킨다. 이것은 사도들처럼 교회는 누구나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다. 제자들이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매우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는데 그 후에 적극적이고 대담하였다. 전에는 근심과 염려에 싸였었는데 그 후에 기쁨이 충만하여 킁박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며 살았다고 말한다. 이것이 흘러나는 생수의 경험이다.

이 생수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과 직접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아는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 죄책, 형벌을 제하신 것이라면 부활은 새 생명가운데 살게 하시는 근거이고, 승천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그대로 누리게 하는 사건이므로 그에게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그 생명이란 걸날림으로 외형적으로 조금 개선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근본 변화인 것이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우리 영혼이 이제는 질서와 충만과 밝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빛이 있으라는 그 한마디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 속에 질서를 선포하신 주님의 능력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알며 그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 5:24 의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되어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의 속에서 찾는다. 속은 마음이고 영혼으로 지,정,의의 좌소이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그 처소이다. 여기에 은혜가 임하면 모든 곳에 들어가게 되지만 여기가 어두우면 모든 일이 안된다.

우리가 아는대로 에스겔 환상의 강수를 보라.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는 그 생수가 성소를 덮고 밖으로 나아가 사해를 덮고 접하는 곳마다, 소생, 생명, 번성, 유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흘러 넘친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이 약속을 주장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누렸다. 구하면 얻게되고 찾으려면 찾는다 (마 7:79)

**둘째, 어떻게 생수를 받을 수 있는가?** 본문에서 주님은 세 단계를 보여주신다. 37-38 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고 했다.”

*첫 단계, 갈구함이 있어야 한다.* - 영적갈증이 요구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라”고 했다. 갈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갈증은 만족이 없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이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세상 만족으로 마치게 된다. 항상 영적 갈증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야만 정상인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은혜받은 자는 어느모로든, 영적 갈증을 가진 자였다.

한 문둥이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갈증(불결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사도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던 자들도 말씀의 찔림을 받고 자신이 예수를 죽인사람과 같다는 죄책이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장막절의 진정한 보호와 은혜를 구하는 갈망이 있는 그들에게 외치신 것이다. 외식으로 어둔 자들은 갈망하지만 그것은 교만과 외식에 사로잡힌 것이기에 은혜받지 못하게 되었다. 19-20 절에 이런 외식을 외면한 그들은 주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순수한 갈증은 은혜를 불러온다. 나의 영혼을 걱정하고 “나는 주려죽는구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에게 화로다” 나는 저주받은 자라는 부족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기에 거기에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참된 갈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금 화를 당하고 지금, 울고 지금 핍박을 당하면 그때가 순수한 갈증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파키스탄의 신자 가운데 한 가정의 이웃에게 10 만원 돈을 빌렸는데 수천만원을 떼먹고

도망간다고 거짓말하여 모함방송을 하니 동네 이슬람 교도들이 몰려와 그들을 화덕 속에 집어 넣어 불태워 죽였다 한다. 이런 자리에 있는 자의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주님에 대한 갈증, 생수에 대한 갈증이 일어날 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이 갈증이 있었고 니고데모에게도 있었다

*둘째 단계, 주께로 가야한다.* - 갈증의 대상은 오직 예수 뿐이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주 예수에게 가는 자는 모두 해결된다. 마 11:에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 가져오라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주님이 지금 해결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솔로몬 행각의 베테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자들이 대상을 몰랐기에 그들은 문체 속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그들은 민가의 한 전설에 목을 메고 있다. 신화, 전설, 기적 등 그러니 주께로 가야한다. 요사이 사람들은 카카오 특이란 전화에 온통 목을 맨다. 얼마나 빠르냐? 거기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나 진정한 유익은 예수께 있다. 주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 사 55: 목마르거든 물로 오라 돈없이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한다. 믿음의 대상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셋째 단계, 마시는 일이다.* - 오는 일도 믿음의 행위이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것은 마시는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는 것이 회개라면 마시는 일은 믿음이다. 주님에게 자신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표현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다.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오장 육부로 흘러들어 우리의 것으로 나타난다. 흡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소관이다. 그의 말씀, 약속을 무조건 믿고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 성령의 강수는 믿음이란 파이프 라인을 타고 일하신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가? 어떻게 일어났나? 순전히 마시는 일이다. 주님이 작은것 들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나눠주는 일을 한다. 그 때 그 큰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비밀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모두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다. 주님이 일하신다는사실 하나로 족하다. 이 역사는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내는 것이다. 위대한 역사이다. 얼마나 기이한가?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다.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230 년, 76 년의 노예생활에 40 년, 수년간 광야 생활에서 오직 믿음 곧, 마시는 행위를 통해 일하셨다. 지금도 이 원리는 어디서나 동일하다. 준비되었으니 와서 마시라는 것이다. 그 때 주님은 성령 안에서 일하신다.

교회는 이런 자리로 속히 나가야한다. 갈증을 느끼고 그 주님에게로 가서 마시는 일을 잘하면 된다. 우리가 먼저 이 강수를 체험해야한다. 언제? 지금 그리하라는 것이다. 현재 내가 회개하고 믿고 나가면 주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 4.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구속의 노란자위인 언약의 완성된 모습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상태”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주권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때 고난을 통하여 빚어지고 나타남을 보인다. 성경은 구속의 흐름이 곧 고난의 흐름임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통로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 자는 구원도 경건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불로 연단된 금보다 귀하게 여긴 것은 그들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한 인간에게 고통이란 결과를 알게하시고 곧이어 구원의 시작을 그 고통을 지배하는 사탄의 머리를 지옥의 고통으로 상하게 하심으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대속적 고난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저주의 고난을 다른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의 말처럼 그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신 죽음이였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죽어 갈 때 불뱀과 같은 모양의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놓고 보는 자가 살아나는 광야 교회에 보여주신 사건에서도 주님은 구원의 대속성을 보여주셨다.

같은 뱀의 형태를 변경시키지 않고 불과 놋으로 서로 바꾸시듯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여 죽어주시심으로서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셨다. (요 3: )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여 이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견딤으로 그 목표에 이르는 것이다.

위에 설명한 하나님 형상화의 실재가 나타나는 네가지 축인 주권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고난이란 것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오늘까지 연결시킨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노선이다. 지금도 교회는 이 네가지 수단을 통하여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가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가 이 네가지 채널을 제하려는 생각과 운동은 그 저체가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이다. 살아있는 부흥하는 교회와 경건한 신자는 모두 이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다.

## 1) 욥의 고난 (1)

첫째, 그의 고난은 시련인가 시험인가? 야고보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시험으로 번역된 두 단어, 페 이라스모스(peirasmos)와 도키모스(dokimos)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전자는 하나님이 연단

하여 정금같이 사용하시려는 목적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시련 (trial) 이란 말로 이해하면 된다. 후자인 도키모스는 사탄이 진리의 노선에서 벗어나 죄를 짓게 할 목적에서 던지는 유혹 (temptation)을 가리킨다. 이 두 용어를 시험이란 말 속에 합쳐 혼용한 것은 실제적인 고난이 여러 각도에서 서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것에는 시련과 유혹이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시련으로 시작하다가 유혹에 떨어지는 것이 있고 유혹이 몰려와도 시련으로 연단되는 경우도 있다. 욥의 경우가 이 점을 잘 설명해 준다.

여호와와의 천상 회의에서 마귀에게 욥의 경건을 자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시고 마귀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 후 두 차례에 걸친 마귀의 단계적 시험이 따랐다. 하나는 재물과 가정에 대한 고난이 몰려왔다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하루 아침에 강도를 당하고 천연재해로 불에 타고 열 자녀들이 대풍으로 집에 깔려 죽었다. 설상가상 그의 온 몸에는 급만성에 해당하는 병으로 악창이 생기고 아내마저 독설을 퍼붓는 참기 어려운 시험을 당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어디까지가 시련이고 어디까지가 유혹 인가를 구분 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섞여 있기에 결말을 보고서 어렵듯이 알 수 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심은 우리로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이런 복합적 요소를 가진 고난은 모든 신자에게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이 오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는 전제 하에 주어지며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금년 한 해만 보더라도 우리 주변과 개인 생활에 이 시험은 정도에 따라 찾아 왔고 이미 그런 자리에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이다. 이것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변장된 복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 욥의 고난 (2)

시련과 유혹에 어울려진 욥의 고난은 그의 세 친구가 방문하기까지 여러 달이 지났다. (7:3) 동방의 갑부이며 경건의 사람으로 평판 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추락된 상태는 비참함 그 자체였다. 끄끙대며 앓는 신음소리는 물이 흐르는 것 같았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매우 가려워 기와 조각으로 긁어대며 불면에 시달리며 매일 연속되는 낮과 밤이 속히 지나기를 바라는 곤고한 그에게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의 고통에 침묵으로 동참하던 그들이 입을 열어 한 최선의 권면은 욥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큰 짐을 안겨주었다. 아내, 친구 그리고 도움받던 이웃들의 말은 그가 당한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쏘아대는 빗나간 화살에 불과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읍의 세 친구의 영적 위로의 모양으로 가장한 사탄의 교묘한 유혹은 참기 어려운 또 다른 시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가? 친구와 변론 내용을 자세히 읽을 때 우리는 읍의 고난을 좀 더 이해하게 된다.

첫째, 그에게 떨어진 급작스러운 충격을 그는 주권 신앙으로 이겼다. 재산과 자녀가 한 날에 모두 날아간 소식을 들은 그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확실히 붙들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지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겿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정점인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음성을 듣는다. 모든 일에 주인 되신 주재권 인정이 환난 날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확신으로 현실의 급박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다. 시험의 정답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고 즉시 그 안에 숨었던 것이다. 오늘날 신자의 환난은 주권신앙으로 이긴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그의 마음에 겸손의 심령을 지키는 것을 가리킨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만이 그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다.

둘째, 그는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자리에 떨어졌다. 4 장에 나온 그의 고백에 보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갈등이 대단했다. 이것은 가룟유다처럼 신세를 한탄하여 목매달아 죽으려는 것이라기보다 차라리 로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심정인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고난의 밤은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난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시험과 피할 길을 주신 증거를 나타내셨다. 연속된 극한의 불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겼기 때문이다.

셋째, 그는 고독을 강하게 느꼈다. 5 장에 보이는 표현은 그의 외로움을 생각하게 한다. 히스기야가 최후통첩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 심적 고독으로 우울증에 사로잡힌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 처럼 보인다. 예수님도 겟세마네동산에서 십자가의 쓴 잔을 생각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 고난의 그림자였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 것은 처음 태도에 비하면 조금 변질되었지만

그래도 아주 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 것이다.

### 3)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나이 많아 기력이 쇠한 다윗이 자기의 총애하는 아들, 아도니아가 주동한 쿠데타 모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정국이 어수선할 때, 자신이 평생 의지하고 건져주신 여호와를 찾았다. (왕상 2:29) 그를 가리켜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라고 말한다. 목동 시절, 곰과 사자의 위협에서 건지셨고, 골리앗의 위협 속에서 극적으로 건짐을 받았고, 사울의 미친 행동의 위협 속에서 또 오랜 망명생활 중에서도 보호와 구원을 받았다. 그 후 시글락에서 심복들이 모두 배반하려는 그 절박한 위기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의 정적들의 비난과 공격, 특히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일과 그것을 이용한 아히도벨 같은 모사꾼의 면도날 같은 위기 속에서도 모두 건짐 받은 것이다. 모든 작고 큰 환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신 것을 회상하며 현재 여기서도 다시 구하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막연한 신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인격적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자기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심중에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잘 알았다. 그러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기를 언제나 원했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대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피할 바위되심을 인정하고 노래하는 체험적 보호의 지식을 소유한다.

이것은 단지 다윗만이 아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야곱도 험악한 130 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한다. 족장들과 다윗이 믿은 그 여호와와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를 보호하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악의 손에서 언제나 보호하신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떤 처지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우리를 뺏을 자가 없기에 그의 보호를 확신하며 찬송했다.

우리가 사는 시대, 기온 변화로 온통 재해를 당하고 핵전쟁을 운운하며, 정신적으로 극도의 인본주의에 떨어져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실제로 경기가 풀리지 않아 모든 먹고 사는 문제의 위협을 당하는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해야 한다. 우리의 주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때가 되어 여기저기 주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주님 품에 안기는 소식을 접한다. 필자의 모친도 1년 전에 별세하셨다. 슬한 어려운 일 중 기억나는 것은 필자의 신학교 시절, 등록금이 없어 고민하다가 교회의 어떤 분에게 가셔도 결국 퇴짜를 맞고 막막했을 때 모친께서는 조용히 방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 닦은 얼굴로 나온 것을 기억한다. 그 후 앞집에 어떤 자매의 결혼 비자금을 빌릴 수 있어서 학교를 계속한 일을 기억한다, 우리 하나님은 한 개인의 경험 뿐 아니라 모든 신자의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건지시는 아버지이시다. 낙심하지 말고 그 분께 나아가 건짐받는 체험을 통해 그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자.

#### 4) 스테반의 섬김

디모데 전서 3:14 에 교회를 “진리의 집”으로 비유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을 말씀(1:5)과 기도(2:1)라고 가르친다. 사도행전 6:4 의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는 사도의 확신 속에서도 보여진다. 이 일을 위해 전통적인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운다. 그 중 집사 스테반은 그의 말씀과 기도 사역이 사도들과 같은 라인에 서있고 성경을 기록할 때 스테반 집사의 사역을 성령이 사용하셨다.

그의 소명 - 그가 언제 거듭났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복음을 들어 믿어 거듭난 것으로 추정하지만 집사의 임명은 성령이 불러 세우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개별적으로 부르신 것이다. 소명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른 무엇보다 교회를 섬기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이다.

그의 사역 - 그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였고 (6:8,10)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설교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한 사실이다. 소위, 구속사 설교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약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바울의 깨달음과 버금간다. 그 예로 구약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 (7:38)라고 규정한 것이나, 승천하신 예수님을 인자로 해석함은 다니엘 7:13 절에 예언된 “인자 같은 이”로 확신한 것이다. (행 7:55-56)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라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이 인자의 복음을 받아 전하는 공동체이다. 그는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가? 이것은 자기 목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열어주어 깨달은 것이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말씀)가 충만하고 덕이 충만한(칭찬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섬김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그의 목표 - 스테반은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쳤나? 그는 설교 한번하고 순교 당했다. 그러나 그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더 큰 부흥으로 이어졌다. 인자께서 그의 섬김을 통해 온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교두보로 삼으신 것이다. 사울의 다메섹 변화는 스테반의 순교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의 겸손한 섬김 속에서 맺혀진 열매이다. 제 2 의 스테반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의 죽음의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다. 악도들의 몰인정한 공격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사실이나 돌에 맞아 고통이 따르는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실은 십자가 지신 주님의 어린양 같은 겸손과 진실과 헌신을 보였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가 자기 영혼을 주께 부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사실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은 내용이다.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인 것이다. 인자를 바라 볼 때 성령을 통해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목숨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인자의 복음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을 살리는 유일한 것임을 확신하여 기꺼이 그 일에 산제물이 된 것이다. 골방에서의 작은 섬김을 주님은 보시고 계셨던 것이다. 작은 섬김을 경시하는 이 세상에서 스테반 집사의

섬김을 따르는 개인, 가정, 교회는 인자가 이루시려는 마스터 플랜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될 것이다.

## 5)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 (마 27:45-46)

서론: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성탄절기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춘 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한 것이다. 창세 이래 구속의 모든 상징(출애굽 사건)과 모든 모형(제물된 짐승들, 유월절 어린양, 여호와의 종)이 가리키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죽음과 고통을 본문은 어떻게 증거하는가? 한 마디로 극심한 고통이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첫째, 세 시간의 어두움이 증거한다.(45)** 창세 전의 흑암처럼(창 1:2)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두움으로 나타났다.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버림받아 최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선교지의 어두움은 대단하다. 전기 없는 밤은 매우 어둡다. 12-3 시까지의 초자연적 어두움-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심

이다. 그가 그가 당한 흑암의 고통은 우리에게 광명을 가져왔다. 그는 그 흑암을 자기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빛을 만드신 것이다. 과거의 어두움인 우리는 대신 고통 당하심으로 현재의 빛이 되었다. (엡 5:9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죽음의 고통에서 나온 것이다. 그 죽음을 사랑하면 할 수록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그의 죽음밖에 없다.

**둘째, 주님의 절규가 증거한다.(46)** 또 그리스도의 고통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성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지옥 고통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 떨어지는 단절이 무엇인가? 소통이 안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가? 나라, 인종, 빈부격차, 문화차이, 성격차이 등... 얼마나 매몰차고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상태인가? 성부가 성자와의 사랑의 단절을 일시적으로 취하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수혈하는것 같다. 아사셀 염소를 들판에 내동대이 치듯이 성부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일시동안 성자를 외면하신 것이다. 성부의 내어주는 사랑과 성자의 자원하신 사랑이 연합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마다 주님의 절규를 기억해야 한다.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46)

**세째, 신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 증거한다. (47-48)**

마취제 일종인 신포도주가 주어진 것이 고통의 실재를 짐작하게 한다. 마취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암 환자에게 고통을 제하기 위해 몰핀을 놓는다. 계속 맞다보면 더 이상 효력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다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다. 그리스도는 내가 목마르다고 외침으로 성경을 성취하시고 구속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것이다. 극도의 고통을 당하여 세상 그 최악의 것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아시고 그가 한 일은 성경을 붙드는 것이었다.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가 외치신 것이다.

**결론:**

그리스도의 최대의 고난은 해 아래서 당하는 것이지만 위대한 보화로 탄생되는 사건이었다. 조개가 모래 조각으로 고통을 느낄 때마다 아말렌이란 액이 모래를 둘러싸 진주를 만들어 내듯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참된 보화가 되신 것이다. 그리고 고난으로 수많은 보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기 백성을 만들어 내신 것이다.

## 제 5 장 성경 속에 보여진 하나님 형상 회복

성경의 주된 흐름, 구속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성령의 역할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진다. 좀 더, 우리는 성경신학에서 본 주제를 성경의 씨앗인 구속이 성경 각 권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흐름과 둘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흐름을 살핌으로서 우리의 주제가 더 분명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 보여진 위의 주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자는 성경의 상징주의와 모형주의가 그 실체를 나타내고 적용하기까지 되어지는 과정과 그 발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린다. 이를 위해 다음 몇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1) 상징주의(Symbolism)란 무엇인가? 보스가 지적한대로 성경의 상징주의는 현재의 의미를 강조하는 수단이 된다. 예를 들면 “생명의 떡”이라 할 때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생명이다. 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란 것이고 그래서 떡이란 보조 관념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을 잘못 다룰 때 그는 떡에 머물러 있고 생명의 실체를 볼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의시주의로 흘러간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려는 목적이 아니다.

2) 다음, 모형주의(Typology)인데 그것은 “상징주의 후문이 모형주의 정문이다”란 보스(Vos)의 말처럼 모형주의는 미래에 이루어질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그 모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나타남을 본다. 여기에 실패한 자는 알레고리 곧 풍유주의로 떨어진다. 이 원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 A.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 형상의 회복

#### 1. 창세기

창세기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계시로 시작한다. 본문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것을 제공받지 않지만 다른 성경의 빛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결정으로 창조가 시작되었고 재창조인 구속을 겨냥한 사역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1 - 3 장까지 사건을 면밀한 구도로 서술하였음을 보인다. 창조의 사건을 기본으로 다루나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구속의 사건을 염두에 둔 기록인 점에서 상징주의의 성격을 갖는다. 그 중에 구속의 개념이 처음부터 나온다. 창세기 1 장 2 절의 영광의 성령의 나타남은 구속의 성격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세계를 만드실 것임을 암시했다.

## 1. 창조의 하나님 (창 1:1-5)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창세기에서 찾기를 좋아한다. 그 책은 모든 것 (세상, 만물, 가정, 에덴, 죄, 일, 인류, 민족, 이스라엘, 구원 등)의 시작을 다루기 때문이다. 세상이 창조되었느냐 진화되었느냐 라는 문제는역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는 이 한 마디가 명쾌하게 답한다.

창세기 1:1-5 은 장엄하신 인격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유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건을 말하기에 충분하다. 태원(근원)에서 잡다(만물)가 나왔다는 동양의 유출설이나 아메바가 발전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은 모두 다 틀린 교훈임이 드러난 셈이다. 더욱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땅을 아름다운 세계로 바꾸는데 성령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수고 (1:2) 가 있었음을 먼저 보인다. 여기 “운행하시니라(hovering)” 는 메라하렘은 구속적 용어임이 모세의 설명 속에서 나타난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속을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훈련시키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활동에 빗대어 이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 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 32:11 -12) 암탉이 유정란

을 부화하기 위해 품는 뜨거운 희생적 사랑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일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는 전혀 다른 질서와 생명과 빛의 세계로 창조된 것이다.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부와 성령의 역할로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드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창조의 목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 사건에서 상징주의 형태로 된 구속적 개념을 아래와 같이 발견한다.

**첫째, 선으로 충만한 창조 (창 1:6-23)가 보이는 실체-**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이기에 선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 첫 날에 빛을, 둘째 날에 하늘과 구름과 바다를, 셋째 날에 땅을,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다섯째 날에 조류와 어류를, 여섯째 날에 육축과 사람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7 중 후렴이 따르고 모든 것을 마친 때에는 “심히”라는 말을 더함으로서 선한 창조였음을 분명히 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이 만물의 아이덴티티에 각 양 본질적 형태로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찬 세계임이 틀림없다. 시편 19 편의 기자가 관찰한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진실의 형상의 광휘로 채워진 세계를 보고 날은 날에 밤은 밤에게 말하고 들리는 소리나 언어가 없어도 서로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온 땅에 나타내는 것이다. 죄 없는 인간이 만물을 볼 때,

즉각 하나님의 성품을 접하고 그의 선하심을 맛보고 즐거워하며 선한 형상으로 더욱 새롭게 되는 일이 계속 되었을 것이다.

6 일간의 창조 사역에는 재창조 사역인 구속을 전제하였음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요한과 바울은 모세가 본 창조의 배경으로서의 구속 (redemption)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창세기 1 장에서 구속의 상징주의들 (symbolisms)을 아래와 같이 발견한다.

1) 첫째 상징주의, “그 빛” (창 1:1-5) -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창조물은 빛이다. 히브리어 “하 오르”는 햇빛과 구분되는 근원적 빛이다. (욥 38:19-20 사 30:26 행 26:13) 첫째, 그 빛은 실재하는 빛으로서 만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골 1:17)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창조의 근원인 그 빛의 실체를 가진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진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다. 둘째, 장엄을 가리키는 엘로힘 하나님이 그 빛을 창조하셨다. 모세가 여호와와의 호칭보다 엘로힘을 사용한 것은 그 분이 우상과 비교 될 수 없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는 말씀하심으로 근원을 만드신 인격적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성부는 말씀하시고, 성자는 발설된 말씀 자체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말씀대로 적용하여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다. 역사의 시공간의 근본이 되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신 것이다. 동방박사의 별같은 그 빛의 실체인 참 빛을 소유한 신자는 정말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2) 둘째 상징주의 *궁창창조 (창 1:6-8)* - 둘째 날의 궁창창조가 구속의 빛 아래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첫째, 궁창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공간이다. 궁창, “라키아”는 동사로 사용될 때 철이나 얼음덩이를 조각하여 부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가 따른 확장(extending)을 의미한다. 이 궁창이 분리시키고 조화시키는 것은 성경적 구원의 성격을 보여주는 최초의 상징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리와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창 3:15, 요 5:24) 둘째, 궁창은 윗물인 구름과 아랫물인 바다를 나누고 넷째 날에 창조될 조류들과 어류들의 활동무대가 되었다. (20-21) 인류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을 그려준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경계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서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게 하려는 깊은 뜻이 여기에 나타난다.

3) 세째 상징주의, *물이 드러나라 (창 1:9-13)* - 깊은 물 속에 잠겨있는 대륙이 드러난 창조 역시, 구속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깊은 물은 세상과 죄악을 가리킨다. 흑암이 깔린 깊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물 속에 잠겨있던 땅 덩이리를 끌어내는 창조였다. 마치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의 깊은 무저갱 속에서 건지신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주의이다. 죄악의 물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은 어떤 난관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해주실 재창조주이시다. 둘째, 말씀으로

건지셨다.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은 삼위일체의 단독 역사의 주된 도구로서 육지 위에 온갖 종류의 식물을 살게 하신 것이다. 여기 나온 모든 종류, “데셰”는 유전자를 가리킨다. 식물의 유전자를 만드신 그 말씀은 일반 계시인 자연과 양심 그리고, 구원계시인 성경의 씨앗이다. 이 말씀이 신자의 생명이다. 셋째, 모든 식물들이 성장하는 무대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마음을 살려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땅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해야 한다.

4) 네째 상징주의, *하늘의 광명들(창 1:14-19)* - 첫째 날 창조와 매취되는 넷째 날 창조는 하늘의 광명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으로 사시사철 연한을 통제하며 자발적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첫째, 해달별은 신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역사상 해달별을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는 우주의 생활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만든 본래의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피조물이다.(14) 그들의 빛은 땅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을 통제하게 했다.(15) 그 속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심은 놀라운 겸손이다. 둘째, 별의 역할에 관해 침묵하심은 우리를 창조주에게로 향하게 한다.(16) 그는 우리로 구속을 위하여 태양까지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수 10:13 사 38:8) 영적법칙 속에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맞 본 신자는 창조의 광원들보다 더 밝은 빛,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5) 다섯째 상징주의, *조류와 어류의 창조 (창 1:20-23)* - 둘째 날의 창조와 매취되는 다섯째 날에 조류와 어류를 만드셨다. 여기서 보인 창조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째, 식물의 생명과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만드셨다.(20) 자연 의학이 발달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총의 발견은 구속의 풍성한 치료를 주목하게 하신다.(겔 47:12) 둘째, 새 질서를 알리는 창조였다. 1 절에 나온 “빠라”(창조하시니라)가 처음으로 다시 나오기 때문이다.(21) 창조 속에 나타난 점진적 발전 역시, 구속의 새로움을 예상하는 상징주의 역할을 한다. (고후 4:16) 셋째, 하나님의 복주심이 처음 나온다.(22) 살아있는 생물들은 풍성한 선물을 받았고 식물 자체가 자생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셨다. 진화론의 허구성으로 채워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독 역사로 이루신 창조의 자상한 숨씨를 주목하고 조용히 그의 질서를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창조의 깊이와 재창조의 깊이를 발견한 시인은 시편 107:1 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과 인자를 노래했고, 바울은 로마서 1:20-21 절에서 주께 감사하고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숨겨있다고 주장했다. 또 창조의 도구인 “가라사대(said)”라는 말은 선의 원천이신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 (요 1:3)임을 알 때 구속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보고 감격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자연이나 모든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그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아 감사하며 사랑과 겸손을 배워야한다. 이것이 만물을 바로 감상한 사람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 3. 하나님의 형상 (창 1:26-31)

본래 사람은 다른 창조물과 달리 전혀 다른 존재로 지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창조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닮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과 의와 거룩을 닮았다는 뜻이다. (엡 4:24)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만물이나 말씀을 통해 드러냈지만 특히, 사람을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러나 타락으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커녕 도리어 마귀의 형상을 보는 자리에 떨어졌다. 죄로 어두워진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노력 없이 문화 변혁이니 사회 개혁이니 하는 것은 모두 말장난에 불과하다. 진정한 개혁과 변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데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냄을 생애의 목표와 능력으로 삼을 때 그것이 성공으로 나가는 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나타내는 세계로 만드시고 그 영광을 받기 원하셨다. 더욱이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심으로 온 세상에

그의 성품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성품들로 충만한 세상을 원하신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할 이유를 말해준다. 첫째, 그것은 삶의 본이기 때문이다.(창 1:26)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그의 성품인 의와 인과 신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에 나타난 벽옥(jasper)은 거룩함을, 황옥(carnelian)은 의를 그리고 청옥(emerald)은 신실함을 나타냄 (계 4:2)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한다. 둘째, 그것은 목적을 이루는 능력이다. 창세기 1:27 에 나오는 세 가지 사명인 생육과 번성, 땅을 정복함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힘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기 위하여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존해야한다. 성령은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이다. 셋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기 때문이다. 6 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며 첫 번 주신 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일이다.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지위를 얻은 셈이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구원의 핵심을 준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힘써야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 창조 세계를 향한 창조주의 감상이 어떠했는가? (창 1:28-31) “좋았더라”는 말이 7 회 나오는데

여기서는 “심히”라는 말이 들어갔다. 창조의 아름다움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드린 자는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겸손을 배운다. 장엄한 자연, 광대한 우주 그리고 절묘한 생물 세계를 본 사람은 자연히 겸손하게 된다. 더욱이 그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를 생각하면 할수록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둘째, 감사를 배운다. 이 만물을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심은 감사를 배우게 하심이다. 내 것이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하면 모든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 셋째, 사랑을 배운다. 모든 것이 분리되지만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 상합하여 세워가며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게 했다. 창조를 믿는 자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이 천상회의 결정임을 알리는 구속의 여러 상징주의는 창종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벌써 그르도안에 완성될 회복된 형상의 실체와 그것을 이루는 구원의 방법이 어떠한 것을 보여준 것이 모세의 가르침이다. 이 형상회복은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걸쳐 부분적으로 진하게 보여졌지만 그 것은 모든 모자의 조각을 모아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 내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구속의 계시인 하나님 형상회복의 실체를 드러내셨다.

## 2. 출애굽기

창세기로 시작된 구속 곧,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계시는 출애굽기를 통해 더 잘 나타났다. 성경신학자 게르할더스 보스( Gerrhardus Vos)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속 계시의 개념들을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이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목표로 두고 나타난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계시의 구조 자체가 상징주의와 모형주의로 나타나 구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첫째, 외방의 학대로부터의 구원을 보여준다.** 이방의 애굽인의 학대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출애굽 사건의 동기였다. 요셉을 잘 모르는 바로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억압 하고 점점 더 고통을 더했다. 그 고통의 수위가 극 에 달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 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여기 나오는 외방 땅에 일어난 바로의 억압은 사탄의 세력 을 상징한 것이다. 이것은 한 민족의 인구 팽창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민족이동 사건 정도가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억압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 시는 그림 계시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구속된 자리가 바로같은 사탄의 사망에 얽매어 죽음을 사용 하여 위협하는 영적 어두움의 세력과 그로인해 잃어버린 영적시력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그림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는 상징주의의 사실을 후에 나타난 계시가 증거한다. 십계명 서술( 출 20:1-

2) 과 이사야서에 나온 회복의 내용은 출애굽 사건을 명확하게 환기시킨다. (사 51:2)

**둘째, 애굽 신들의 심판을 보인 구속의 그림이다.** 우리가 신약에 나타난 요 8:33-36 과 롬 8: 20-21 을 관찰 할 때 예수님과 바울은 애굽신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해석함을 엿본다. 주님은 구약 의 애굽의 억압을 사탄의 억압으로 해석하셨고 바울 역시 구속을 향한 만물의 고통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출 12:12 에서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억압하던 바로의 정치 세력이 망한 것은 우선 애굽의 신들을 멸하는 사건 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하나님 형상 회복은 사탄의 형상을 가져올 가라지를 뿌린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인 것이다. 뱀의 마리를 상하게 하신 여인의 후손의 예언대로 정말 뱀의 후손이 바로의 억압을 제하실 뿐 아니라 그 장본인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하여 구원의 시작을 나타내신 주님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발아래 완전히 상하게 하실 날을 예언하시고 역사상 그런 방식으로 이루시되 단번에 행하시지만 점진적으로 상하게 하시는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에서 7 족속을 남겨두시고 서서히 쫓아내게하심이 그들로 원수에 대한 철저한 승리를 경험적으로 배우게 하여 이 땅에서 당하는 온갖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를 적용하는 것을 배우게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일

은 이 땅에서 부터 하나님의 성품 이 드러나게 하려는 의지의 나타남 이었다.

**세계, 죄로부터의 구원을 보여주었다.** 하나님 형상 회복인 구원은 단순히 고난에서의 구원 보다 모든 흑암, 혼돈, 공허의 근원인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이것을 모세는 애굽이란 강하고 끈질긴 외방 세력인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건짐받는 사건 곧, 애굽의 바로는 물에 빠져죽었으나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구원받는 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하심은 애굽같고 홍해의 물결같은 죄, 죄책 그리고 죄의 근원인 자율주의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준 것이다. 죄가 해결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곧 하나님의 의인신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 줌으로 완전한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구출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애굽의 430 여년 종살이는 단지 정치적 억압만이 아니었다. 히브리인들의 내적 부패와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의 식법을 주시고 히브리인들로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의 관습에서 차츰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계셨음을 분명히 하셨다. (겔 23:8, 19,21) 그들은 단지 정치적 억압 아래서 심하게 타협하고 동화됨으로서 점점 부패하여 갔기 때 문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예언의 성취로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 한 동안, 아모리 족속의 종이 될 것 을 예언하셨기 때문이다.(창 15:13)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피상적인 구출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은 어두움인 죄 에서의 구원을 겨냥한 것이다.

**네째, 전능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의 흑암과 혼 돈으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친히 구원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홍해를 건넌 후 미리 암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모세의 노래인 출애굽기 15 장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단지 기적을 통한 기이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그것을 이루신 전능자의 능력으로만 되는 구원임을 분명히 했다. (6, 7,11) 이 원리는 이미 최초의 복음에 나타났고 창세기 역사 속에 다양한 형태로 뚜렷이 알려진 방법이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을 공동체로 다루는 구속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애굽을 멸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이다. (출 3:20) 신자의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전능자의 능력으로 됨이다 거기에 우리의 협력은 어떤 공로로 취급될 수가 없고 특권으로 보아야한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자기 백성이 참여케 하심으로 그 큰 영광을 나누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의에 이를 구원을 본다.-** 또 그 구속은 하나님의 의를 만 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죄와 사탄에 대한 완전한 정죄로 표현되었다. 그래서 온전함의 의미를 가진 열 재앙을 내려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공의를 나타낸 것이다. 그 심판은 단번에 행하신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과정을 두심으로 나타났다. 모세를 통

해 더 강한 손을 펼쳐 그들을 심판할 것을 보 여주신대로 된 것이다. (6:6, 7:3) 이것은 장차 구속사의 절정에 해당되는 종말시대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감을 암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기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 는 의 위에 설 때 가능하다. 이 의는 우리의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를 단 지 내 것으로 받아드림으로 얻어지는 믿음의 의이다.

**여섯째 상징주의는 구별시키는 주권적 은혜로 나타났다.** 이미 본대로 그 백성의 구원은 뚜 렷한 구별을 됨으로 나타났다. 창세기의 창조 속에 보여준 대로 나누시고 채우시는 구속의 성격이 더 확실하게 보여진 것이다. 애굽과 이스라엘 간에 차이를 분명히 두신 것은(출 8: 23, 11:7) 그들의 장점 때문이 아니었음을 (신 7:7 9:4-6) 분명히 하 심으로 주권적 은혜, 무조건적 은혜의 구속임을 확실히 각인시키셨다.

**일곱째 상징주의는 양자로의 구속임을 보였다.** - 이 은혜의 구 원은 창 6:2 절에 나온 “양자 의 개념”을 보여주심으로 자라났다.(출 4:22, 신 32:6) 언약 백성은 여호와와의 부자관계의 연합으로 나타났 고 나아가 신지식 곧 영생을 누리는 관계로 나타난다. 여호와를 아는 영생의 관계(to know)와 (출 2:24, 25, 신 7:6,7, 14:2) 이전 소유를

회복시키는 “구속”의 의미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이다.(출 6:6 15:13  
신 7:8 9:26 13:5 21:8)

**여덟째 상징주의, 여호와와 이름**- 무엇보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속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돋보였다. 그 이름이 모세 시대 계시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출 6:3) 여호와를 알게 됨으로 언약 관계를 분명히 하시려는 여호와께서 신지식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다. 6:7에 “안다”는 것은 지성 적 감정적 앎을 뛰어 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실제적, 경험적 지식을 말한다. 신약적 표현으로 이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보여진 아도나이란 호칭인 여호와와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으로서 그의 신실성과 관계된다. (단 7:9, 사 26:4, 호 2:20 말 3:6) 신실함을 생명으로 삼은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신실하신 여호와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신실함은 신약의 배경이고 기초가 된다.

**아홉째 상징주의, 유월절**- 또 보여진 구속의 개념은 유월절 사건으로 한층 깊이 있게 표현되었다. 은혜가 속죄의 과정을 거쳐 주어졌기 때문이다. 여기 넘었다는 말, 파삭(Pasach)은 “뛰다, 뛰어넘다, 석방하다(to leap, to jump over, to spare)”는 의미를 가진다. 출 12:27은 이것을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라고 언급한다. (출 34:25 민 9:7-10 고전 5:7)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할례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면 유월절은 모세에게서 나온 구속의 상징주의임을 본다.

**열번째 상징주의, 홍해도하**— 출애굽 시간 속에 두드러지게 보여진 이스라엘의 홍해도하는 그리스도 안의 구속의 과정인 중생과 성화를 보여주는 상징주의이다. 그래서 바울은 구름 아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언약 백성이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설명한다.(고전 10:1-3) 애굽의 모든 습성과 죄악이 장사되고 새로운 가나안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 새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세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무지개나 할레도 세례의 상징이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같은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 대한 불순종으로 세상의 풍습을 따르던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 가나안의 젖과 꿀을 즐기는 자들이 된 것이다.

**열한번째 상징주의, 율법과 십계명의 기능**— 신정에 필요한 것은 백성과 땅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다. 631 조항으로 된 율법은 의와 인과 신을 중심하여 만들어진 체계로서 하나님 백성의 윤리적 삶의 모델을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 형상 회복의 삶에 목표를 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율법은 위생법, 시민법, 의식법을 보여주지만 그 기본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과 관계된다. 위의 율법을 요약하여 두가지 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간의 계명으로 구분된다.

**열두번째 상징주의, 성막**- 마지막으로 구속의 상징주의 중, 중요한 하나가 성막이다. 언약 백성의 모임의 중심소인 성막의 핵심은 시은좌 곧, 하나님의 보좌에 놓여있다.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는 상징주의이다.

위에 언급한 구속의 상징주의는 우리의 주재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된 모습이 창조 때보다 더 놀라운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은 구속이 재창조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창조는 하늘의 영광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나타남이다.

### 3. 레위기

레위를 통한 구속 계시인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후 만 들어진 제사 제도에 초점을 맞추므로 나타난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정상적 생활을 회복하고 지속시키는 길임을 보이셨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더 깊고 확실하게 보여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는 구속의 효력을 경험할 수 있는 피 흘림의 적용을 통한 구속임이 돋보인다. 레위의 가르침은 언약 백

성의 구속의 실체를 이 땅에 더 분명히 들어내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인다.

레위기는 단순 명쾌한 구조로 되어있다. 상징주의와 모형주의의 관계는 밀접하여 한 그림계시에 두요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신중한分別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짐승의 몸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예배자 전체를 바치는 것임을 실물로 가르친다. 이 자기 몸을 모두 드리는 산제사의 삶 곧 헌신의 실재를 강조하고 돋보이게함으로 배우게 한다. 그러므로 동시에 이 번제는 미래적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를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진정한 번제는 예수 밖에 없으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반복된 다양한 제사는 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구약 문맥에 들어 있는 레위기에 나타난 신약적 메시지는 어떠한가? 아래 다섯가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구속의 가장 직접적인 용어들이다.

a. **하나님의 거룩**-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과 청결과 순결 중심한 개념의 동기를 모두 분별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11:45 19:2,20,26)

b. **제사 제도**- 이것은 언약 관계를 세가지 방법으로 유지하게 한다. - (1) 제사는 언약의 주님이 예배자에게 주신 선물이고 (2) 언약 당사자 간의 교통과 교제를 가리키며 (3) 언약 관계를 치유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속죄라는 용어들 곧, “제사하다”, “희생하다”, “거룩하게 하다”, “정결케 되다”. “죄와 약함” 등 용어들을 발견한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직접적인 전환점을 만든다.

여기 나온 다섯 제사는 모두 이런 상징주의의 실체와 모형주의의 그리스도를 적용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1) **번제(Burnt Offering)**- “올라간다 (ascending 올라)”는 의미를 가진 번제는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로서 속죄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제물 위에 안수하는 행위가 따랐다.
- (2) **소제 (Meal Offering)**- 언약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서 간혹, 공물(tribute)로 번역된다. (삿 3:15, 17-18, 삼하 8:6)
- (3) **화목제( Peace Offering)**- (7:11-38) 살롬 (평화)으로 알려진 이 제사는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 (4) **속죄제 (Purification Offering)**- 죄를 제하는 제사이다.
- (5) **속건제 (Guilty Offering)**- 자기의 허물이 기억날 때 드리는 제사이다. 여호와의 고난의 종, 그리스도는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언

약 백성의 구속을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 하리로다.” (사 53:10)

c.       **그리고 레위기는 언약의 원리를 잘 보여준다.** 모세의 은혜 언약 속에 보여진 언약의 원리가 레위기 속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레 8:4 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한다. 규례를 행하면 이로 인하여 살게되는 규정은 아담이 에덴에서 받은 최초의 원리였다. (창 2:17, 3:3) 이 원리를 통해 언약을 지킴으로서 하나님과 산 교제가 가능하지만 과기할 때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진다.

d.       **제사장 직분-** 아론의 가문에 제사장 직분을 두심은 이스라엘 전체 곧,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다. 그래서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이 지킬 제사 규례가 부각됨은 제사장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심이다. 이스라엘의 생사는 제사의 승패에 따라 좌우되었다. 이것은 에덴 동산 회복의 기준이었음을 암시한다. 가죽 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리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고, 제단의 제사를 열납하심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원리는 레위기를 통해 더 자세하게 보여졌다.

이것은 모든 제사의 총화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서의 효력을 나타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참 제사장으로 (벧전 2:9) 한 영원한 제사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게 된 것이다. (히 10:22, 엡 3:12)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롬 12:1-2)

**e. 레위기와 히브리서의 관계**- 레위기의 제사제도는 그리스도 안에 모두 완성되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한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비교되어도 그 효력이 비교될 수 없는 까닭은 그림자와 실체의 비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밝히신 대로 제사의 실체를 잘 알기 위하여 그림 계시인 레위기를 통해 자세히 배운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살핌으로서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지루한 책이 아니고 우리 가슴에 감격과 불을 던져주는 책이 된다.

요약: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본 레위기는 네가지 주제로 정리된다. (1)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한 규례는 이스라엘의 개인적, 민족적 생활에 관한 법이 포함된다. (2) 새 민족의 예배서인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과 성막 기구를 돌보는 레위지파에게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다. (3) 레위기는 죄 많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동물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과의 교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라는 두 문제에 관한 대답을 준다. (4)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드러진 예배는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로 완성되었다. 히브리서를 통해 레위기의 모든 상징의 실체가 어떠함이 우리에게 알려진다.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로, 레위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으로, 짐승의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사의 일시적 효력은 십자가의 영원한 효력으로 성취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인 구속의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백성이 직접 만나는 회복된 에덴동산이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지성소의 그림 계시이다.

#### 4. 민수기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아래와 같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의 11 일간의 행진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반역, 38 년간의 광야 방랑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 문턱에 들어서서는 새 세대의 모습으로 마쳐진다. 그리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자기 백성의 불신실함을 잘 비교한다. 비록 하나님이 불순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어도 자기 백성의 40 년 징계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자기를

믿고 순종한 모세,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셨다.

민수기 제목이 계산하는 인상을 주는 것처럼 본문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 (민 1:; 3:15—31, 7:10-83, 26:5—51 28-29, 31:32-52) 이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이 민수기를 잘 읽지 않는 책으로 알려졌으나 신학적 관심을 많이 갖는 책으로 알려져있다. 그것은 발람의 예언과 민수기의 법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된 민수기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전의 쟁점인 영과 육의 대립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치열한지를 그림 계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보여주기에 우리의 주목거리가 된다. 우리의 주제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 곧, 하나님의 성품의 세가지 요약, 의, 인, 신이 그저 주어짐이 아니고 평생의 전쟁을 통하여 조금씩 나타나는 열매 곧, 성화의 실체를 보게하는 구속의 무대로서 민수기는 돋보여진다. 거듭나자마자 신자의 마음이 전쟁터가 되고 거기서 어떻게 자기의 부패성과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는 점에 관해 실제적 통찰과 지혜를 얻는 보고가 바로 이 민수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 년의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일세는 다 죽고 오직 광야 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롬 6:6) 새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권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수많은 고통과 배반과 회복과 징계와 정화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당하는 파쇄를 통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백

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울이고 잣대이다.

**민수기의 저작** -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단 한번 민 33:1-2 절에 나온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책에 모세를 일인칭이 아니라 삼인칭으로 표현한 것은 당대의 기록 관습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는 후에 모세가 더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민 21:14 절에 나온 전쟁기에 인용된 짧은 시가 나오고, 민 32:34-42 절에 1 1/2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서술한 점과 모세가 당대 살아있는 사람 중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그 사실성을 암시한다.

**민수기의 문학적 분석** - Milgrom 은 민수기 속에서 많은 장르들, 즉, 이야기 (4:1-3), 시 (21:16), 예언 (24:3-9), 승리의 노래 (21:27-30), 기도(12:13), 복(6:24-26), 스케취 (22:22-35), 외교 편지 (21:14-19), 시민법 (27:1-11), 제사법 (15:7-21), 법령 결정 (15:32-36), 인구 조사목록 (26:1-11), 성전 기록 (7:10-88), 그리고 여정 (33:1-49)을 포함시킨다고 한다.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구속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 **신학적 메시지:** 본 서의 전반부 25 장은 제 1 세대의 죽음을 말하고 나머지 26-36 은 제 2 세대가 그들을 대신함을 보이기 때문에 구속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반부는 죄와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며, 평신도들과 제사장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반역하고 (민 12,16-17) 백성들은 계속 불평과 원망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13- 14 장에 기록된 정탐꾼 이야기는 1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기를 나타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신다. 민 22-24 장의 발람 사건이 이를 밝힌다. 그래서 본서의 전반부는 절망으로 나타나지만 후반부는 적극적인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

2) **신약적 적용:** 본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돋보이게 한다. 반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심으로 나타나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보호와 위로와 능력으로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실패없는 사랑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민수기는 로마서 7 장과 8 장에 나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계속 되는 영적 갈등을 실제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성화의 메시지이다. 영이나 육이나, 성령의 생각이냐 육체의 생각이냐를 분별하

여 육체 소욕의 교묘함과 비참함을 사건 계시로 조명하면서 그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길이 오직 하나님(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한다.

### 요약:

모세오경의 네번째 책, 민수기는 광야 교회의 1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을 통해 인간 육체의 소욕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백성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한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육체를 따름으로 반역 행위로 취급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이것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온 것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계속 일어나는 영육 싸움의 성격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뿐임을 그림 계시로 자세히 설명한다. 그래서 민수기는 어둠에서 시작하나 소망으로 마쳐진다. 이 소망은 신약에 나타날 그리스도 소망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영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수기 속에서 그 성격과 해결 방법을 잘 배워, 산 소망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영적, 실제적 밝은 빛을 비춰주기에 주목해야한다.

## 5. 신명기

신명기의 영어 명칭, “듀트로노미”는 70 인 역의 듀테로노미온, “이 둘째 율법”이란 말을 따라 “율법의 복사”(17:18) 라는 구절의

오역으로 생긴 명칭이다. 유대 인 원문의 “데발림 (말씀들)” 은 책의 첫 글자를 제목으로 하는 유대의 관습에서 나온 것이다. 신명기는 “모세의 말이 이러하니라” (1:1 하)” 는 고대 군주의 협약 문이 이런 형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의 제목은 이 책의 문학적 성격을 밝히는 실마리 중 하나이다. 이것은 구약학자 클라인의 신명기에 대한 신학적 분석이 필자의 주제와 부합하기에 그대로 채용했음을 밝힌다.

**연대와 저작권:** 신명기의 기원은 구약 문학과 신학에 관한 모세 오경의 현대 고등비평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대 문서 설에 의하면 주전 7 세기의 것으로 보고 요시아의 개혁의 기초(참조 왕하 22:3-23:5)와 중심화하려는 이교의 관심 대상(신 12: 4-14)으로 본다. 수식화된 형식이란 견해가 부정적 비평가들 속에 계속되었고 후기 포로 연대로 돌리고 싶어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초기 왕정 시대와 이전 왕정시대까지 신명기의 합법성을 주장한다. 모세 오경 문서들의 연대의 중요성은 긴 연대기적 진화의 변화가 아니고 다른 지리적, 이교적 원천을 정착시킴으로서 그 코드의 모순점을 설명하려 했다.

특히 신명기는 세겔 성소를 추적하여 나아간다. 신명기를 첫 네 권과 연결시키는 대신 어떤 현대적 접근은 신명기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신명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모든 책들과 타협하면서 모세 6 경

으로 생각한다.

최근 정통 크리스찬 학자들은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군중에 대하여 모세의 고별설교와 의식설교로서 신명기의 평이한 주장을 받아 들임으로서 고대 크리스찬과 유대주의 전통을 인정한다. 신 31:9 과 2 절은 모세가 기록할 뿐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들” 이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한다. 어떤 경건한 직분자가 모든 같은 형태로 모세가 죽음 (34 장) 모세의 증거노래(32 장) 그리고 진술 (33 장)을 기록함으로 문서를 완성시켰다고 본다. 역시 그는 이 합법적 문서에 간단한 구조적 요소를 첨부한 것 같다. 모세의 저작으로서 신명기의 통일성과 저작권은 주전 2000 년 중반 고전 형식으로 된 군주 언약 혹은, 협약 형식으로 된 구조와 놀라운 일치성을 보인다.

### 3) 역사적 경우

오직 그것은 신명기가 충분히 해석되어 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활동 구조 안에 속한다. 족장들 안에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으로 충분히 성취되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중보된 언약 속에 예시적 혹은, 모형적 성취를 하게 된다. 시내산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위의 여 호와의 왕권의 대리적 인물로서 모세와 함께 신정이 세워졌다. 그 때 번역하는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멸망하였고 모세 자신의 죽음이 일어났을 때 제 2 세대에 관한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다. 의식에 대한 중심된 행위는 그들의 거룩한 주께 맹세로 이루어진 종된 백성의 절대 헌신에 있다. 특히 하나님의 상징적 통치가 땅에 나타난 것처럼 증보적 왕조가 모세에 대한 계승자로서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기 위해 위탁됨을 이스라엘에 의해 확고히 보증을 받아야만 했다.

위대한 왕이 종된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할 때 고대 근동 지역의 표준적 규정은 의식적 본문과 협약 문서 그리고 고 증인을 갖추게 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군주적 협약에 대한 증인으로 모세에 의해 준비된 문서이다. (참고 31:36)

## **B. 구약 역사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서론:

12 권으로 분류된 구약 역사서의 흐름에서 여전히 수없이 반복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한 그림 계시는 하나님 형상회복의 흐름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구약 역사서 속의 흐름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구속적 개념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5 가지 정도의 구속적 개념을 발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관찰하는 열쇠가 된다.

1. **성전** - 성전은 자울주의와 함께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반대하는 사탄과의 싸움의 실체를 나타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쟁이 계속된 것은 왕정시대이다.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할 때 그들은 원수를 정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일 그들이 그 길을 똑바로 걷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비참한 부패로 떨어졌다. 마침내 전쟁의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다. 그리스도 안의 전쟁은 더욱 심각하고 구체적이고 더욱 점진적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음으로 교회의 성화를 이루라고 권면한다.

2. **기업, 기업 무를 자** - 구속회복에 관한 두번째 개념은 기업이다.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상급으로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가리킨다. 비록 그것이 볼 수 없는 하늘이지만 이스라엘의 신정으로 계시되었다. 역시 이스라엘의 왕조는 주권적 하나님인 볼 수 없는 왕을 위하여 역사 속에 나타났다. 예를 들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그 점을 증거했다. 그리고 슬로보핫의 두 딸은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갖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자기들의 기업을 구했다. 그것은 그들 생애에 기업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뜻이다. 더욱이 자기 가문은 영원히 술을 금한다는 레갑의 신실한 믿음은 그가 개종자라 할지라도 기업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마침내 모든 기업의 원천이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고 현실적으로 그의 백성을 가진 구속의 기업을 위하여 그것은 왕중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성취되었다. (엡 1:13-14) 롯기 속의 구속은 보아스 속에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속주의 상징적 개념으로서 기업 무를 자로 변화되었다. 이런 생각 외에도 이스라엘 안에 그들의 삶으로 그들 자신 속에 기업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3.신정과 왕정**- 또 다른 구속개념은 신정과 왕정이다. 이것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은혜언약의 목적이다. 먼저 그들이 땅을 정복한 후 가나안을 받았을 때 410년간 사사시대가 세상에 신정을 나타냈다. 비록 그 날에 환난이 일어났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의 신정이 사무엘시대에 왕정으로 바꾸어졌어도 사사의 권위 아래 다스려졌으나 그 원리는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절대 주권적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왕권을 반역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령을 통한 구속 안에서의 왕권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의 풍성한 열매를 맛본다.

**4.성전과 산당**-하나님의 형상회복 속에 가장 중요한 갈등은 제사의 성공이나 아니면 실패냐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참 예배만이 회복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제단, 성전, 그리고 산당의 개념은 그 날에 집중되어야만 한다. 비록 성막이 성전 혹은 산당으로

바꾸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은 바뀌어질 수 없었다. 이교 예배의 방법론은 불의, 광포, 불신실인 사탄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한다면 즉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되어졌다.

그리고 성전은 거룩한 교제의 장소로 산당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부패한 백성의 산당은 거짓 신을 예배하기 위한 중심지로 만들어졌다. 거룩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다. 마침내 성전과 산당 예배의 양쪽은 시온의 예배와 자폰의 예배로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 혹은, 사탄의 형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마쳐야 할 것이다 (클라인의 하르 마계돈을 참조하라)

**5. 법궤, 하나님의 말씀** - 회복의 목적과 방법이 나타난 가장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법궤이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라고 강조하셨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다. (수 1:8)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절대적으로 옮기실 수 있다.

###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한 생활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주제는 역사 속에 성경의 개념에 의해서 모아지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한 더 넓은 범주로 발전했다.

그것은 영적 은사와 영적 리더십으로 일한 경건한 삶에 의해 나타났다.

- (1) 여호수아 - 1:1-8, 23:1-16
- (2) 사사 - 1:10, 6:34, 11:29, 14:6, 19
- (3) 사무엘 - 삼상 1:15, 2:1-10, 3:1-21, 7:5-10, 16:12-13
- (4) 다윗 - 삼상 16:1-13, 24:5-6, 삼하 11-26, 6:16-23, 22:-23:
- (5) 솔로몬 - 왕상 3:1-15,, 22:22-51, 10:1-9,
- (6) 엘리야 - 왕상 17:1-24, 18:-19:
- (7) 엘리사 - 왕하 2:1-25, 13:20-21
- (8) 느헤미야 - 1:1-10, 5:1-19
- (9) 에스라 - 느 8:1-18 에스라 9:-10:
- (10) 에스더 - 에 4:14-16

## 1. 여호수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여호수아서는 구약 역사서의 첫번 책이다. 이 책의 초점이 상징주의와 모형주의로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준다. 하나님 백성의 구속을 풍성히 나타낸 그 구원이 하나님 형상회복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회복이란 말이 상징주의와 모형주의로 표현 되었다 해도 그 실체는 교회에 분명히 나타난다.

이 책 속의 상징주의와 모형주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인과 신과 관계를 가지는데 구속의 목적도 되고 구속의 방법도 된다. 여기서 우리는 세가지 사건, 요단도하의 사건과 가나안 정복의 주관자인 군대 장관 그리고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 살펴본다

### 1) 요단강 도강 사건 (수 3:1-17)

성경의 기적은 기이한 현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기적은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그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설명 계시라 일컫는 그림 계시의 일종이다. 기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기적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속하시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여호와와는 왜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들의 삶은 초자연적 능력이 요구되는 많은 환경에 놓여있다. 먹고 마시고 행하시고 싸우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은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교회의 표적으로 분명히 증거한다.

그 가운데 홍해도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구속을 나타낸다. 이것이 사도의 해석이다. (고전 10:1-2) 현실적으로 홍해도하의 사건은 풍성한 구원, 죄사함, 칭의 그리고 구원의 표적으로서 세례를 말해준다.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물 건넌을 발견한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지는 사건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요단강을 건넌은 교회 구원의 또 다른 면을 의미한다. 13-16 절은 “ 온 땅의 주 여호와와 케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케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케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케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라고 했다.

그것은 홍해도하처럼 자기 백성의 구원을 나타내는 또 다른 큰 계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또 다른 면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1-5 은 본문을 해석한다. 바울이 구약 교회가 구름과 물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식으로 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실체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징적 사건을 구원의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홍해 도하는 하나의 상징주의이며 그림 계시이다. 그 상징의 실재는 무엇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성격 곧, 죄로부터의 구원을 배운다. 여기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근본적인 구원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의 세밀한 구원을 가리킨다.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실제적인 은혜를 맛본 후 죄악의 욕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홍해 건넌 것은 세례, 칭의를 가리키나 요단강을 건넌 것은 자아부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 성화를 가리킨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 받았음을 인정한다. 근본적으로 물세례는 우리 구원의 표지이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세례이다. 성령세례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으로 깨끗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중생을 말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 3:5 -6) 라고 말씀하셨다. 중생이란 크리스찬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다.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상징주의를 가리키는 실체이다. 우리가 아사대로 고전 12:13 절에 연결된 내용은 이것을 밝혀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례에 참여한 자가 되고 물을 마시고 세례의 은혜를 마실 때 세례의 풍성함을 즐긴다. 구원의 실재를 설명하는 계시록 3:20 을 보면 주님과 더불어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로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고 성화는 칭의의 기초 위에서 되어가는 구원의 과정이다. (롬 8:28-30)

우리는 물세례와 반석에서 나온 물 마심을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이해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세례는 죄의 욕망에서의 구원을 가리킴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둘째, 요단강은 죄를 생산하는 욕욕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었다. (갈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거할 바는 거룩과 순결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너 자신을 정결케 하라” (5)는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자신을 살게해야만 한다. (3:11, 14, 16, 17)

“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 갔더라”  
 (수 3:11-17)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책과 죄와 악과 형벌을 처리했다 해서  
 우리 지혜로 욕욕을 이길수 있다고 하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못하다. 로마서 7:21-25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가 없다. 우리 의견, 수양 그리고 선행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죄를 제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의 욕망은 자극적이고 조직적이고 강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에 그 점을 잘 아셨다. 겟세마네에서 그는 그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 그 때 제자들은 잠을 잤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 26:41)라고 하셨다. 여기의 육신 (살크스)은 부패성인 육을 가리킨다. 그 육이 주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것이 거기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죽음으로 던져야 한다. 주님은 그들이 해결할 중요한 방법을 주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육을 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렘 6:6 갈 2:20, 6:14) 바울은 로마서 7:15-19 에 언급하기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고 했다.

이것이 불타는 욕을 제하는 주요한 열쇠이다. 오직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우리는 삶 속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로질러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극적인 일 곧, 거짓말, 미움, 시기 그리고 성적 욕구에 유혹을 받으면 우리의 실제의 삶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의 정욕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의 효능을 인정해야 한다.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께 산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나가게 된다. (롬 12:1-2)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볼 때 우리의 내면의 빛을 본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변화 받게 될 것이다 (고후 3:18) 이것이 요단강을 건넌의 실체이다.

그대는 홍해를 건넌는가? 그대는 그대의 삶에 요단강을 건넌는가?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법책을 따라간 것처럼 그들이 물 안의 마른 땅에 발을 들여 놓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갈 때 자아의 거센 요단강이 갈라졌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죄된 욕망을 극복할 수 있다. 다음, 우리는 요단강의 다른 구속의 상징주의인 요단강을 건넌을 본다.

세째, 요단강은 구속사의 빛 안에서 마귀, 죽음 그리고 죄를 상징한 것이다. 우리가 이 사건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시는 우리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실체를 보아야만 한다.

1) 우리는 죄와 악과 우리의 정죄의 주요 원인이 되는 죄책의 흐름을 가로질렀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깨끗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롬 8:31-37 과 롬 3:31-37 에서 언급한 놀라운 약속을 주장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 드린다고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는 불행한 죄와 죄책과 육에서 건짐을 받았다. (요일 1:9) 마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가로지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의 흐름을 믿음으로 건넜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정죄를 받지 않았다.

(요 5:24)

불교는 죄가 충만한 죄의 흐름을 놓은 산 그리고 모래산과 같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선행이 죄의 흐름을 가로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로 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현실적으로 그런 가르침은 기독교이외에 어떤 종교, 곧, 유교, 힌두교, 무슬림 그리고 자연 종교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인간의 장점이 인간 마음에 어떤 작은 죄라도 결코 씻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죄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진정시킬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공적으로 죄를 깨끗게할 수 있는가?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고 고통할 때 그는 자기 속에 깨어난 마음과 씨름을 하기를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  
 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 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했다. (시 51:3-6)

그는 죄의 뿌리와 깊이와 능력을 발견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그는 자기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상징하는 우슬초 끈,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는  
 죄 씻는 도구로 적용하게 되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  
 이다.“ (시 51:7).

어느날 다윗은 고백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 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롬 4:7-8) 라고 했다. 참 회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한다. 당 신은 죄의 흐름을 가로질렀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는가? 최근에 언제 죄를 고백했는가?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요단강을 가로질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요일 1:9)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의, 인, 신으로 변화된다.

실제로 우리는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한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는 그의 부름에 그 과정이 필요 했었다. 그는 열정적으로 엘리야가 가진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상 11:10) “ 그의 선생이 떠나기 전에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가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침묵한다. 그러나 계시는 우리 에게 효과적이지 하기 위하여 상징주의를 사용한다. 그는 그의 선생이 한 것처럼 옷으로 요단강을 침으로 갈라 지게 하고 건넜다. 그 때 그의 행동 전에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들의 친구들이 그 행동을 보고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죄의 흐름을 가로질러야 한다.

신학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외적인 죄악의 옷을 찢어 버리는 선지 동산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훈련 과정에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남녀간의 불행한 관계의 이슈를 듣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요단강을 통과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정결함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다.

우리는 죽음의 요단강 흐름을 가로질러야 한다. - 요단강은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가리 킨다. 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라. 그는 “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있느냐?”고 소리쳤다. 그 죽음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강한 자이기 때문이다. 벌써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마음, 가정, 관계 그리고 사역에 많은 죽음의 상황을 만난다. 그 때 우리는 능력을 적용 해야 한다.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명해야만 한다. 비록 우리가 죽을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전해야 한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활력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 로부터의 부활로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 문에 요단강을 가로질렀음을 확신해야 한다. 그래서 생수의 흐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게해야 한다.

에스겔 37 장에는 교회 안의 생수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나? 생수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 그리고 성전에 흘러 가득 채운 후 밖으로 흘러나가 죽음의 바다와 생물을 살아나게 했다. 우리가 교회를 겸손히 섬기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은 부흥의 역사가 죽은 상황, 고난, 핍박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비록 초대교회가 불행한 자리에 놓였어도 부활의 역사가 세상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을 건너고 부활 생명으로 절대 절망과 사망의 문을 열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2) 우리는 사탄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

요단강의 또 다른 의미는 사탄과 그의 권세를 정복하는 것이다. 상징주의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고 모형주의를 통해 미래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놀라운 방법이다.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모든 죄를 정결케하고 모든 유혹을 극복함을 나타내며 마침내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김을 뜻한다.

홍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홍해가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고전 10:1-2에 의하면 사도의 해석의 빛아래서 그 실재를 이해할 수 있다. 홍해는 스가라의 첫 이상 속의 “깊은 상태”(18)처럼 사탄과 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구속을 알기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 속에 홍해의 가로지름을 관찰해야만 한다.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저주와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장한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나? 그것은 악의 상태에서이다.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자리에 떨어질 때 절대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의 절망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원래의 구원 계시를 살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실제로 홍해와 요단강을 가로 지르는 사건은 놀라운 구원을 가르친다.

흑암, 사탄, 저주, 형벌, 죄 그리고 지옥같은 불행한 자리에 처한 한 중풍병자를 보면, 그들이 열정과 겸손으로 주님에게 가까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선포로 요단강 같은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즉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다. 우리가 현재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함받은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의 곤고함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학교 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주제를 배우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는 거룩과 평화를 잃는 유혹을 극복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하라고 권했다. 자극적인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헌신해야만 한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욕망을 이기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다.

## 2. 이스라엘 군대장관은 누구인가? (수 3:13-15)

성경은 자기 백성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 더욱이 구약은 모든 구속의 창조주이며 구원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구약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상징주의와 모형주의를 만난다. 처음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스도가 수행하셨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이었다. 그러면 군대장관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주요한 대답을 얻기 위하여 다음 질문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그가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임이심을 무엇이 증거하는가? 여기에 두가지 증거가 나온다. 하나는 그는 여호수아 앞에 서서 그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를 가르쳐 줌으로 가나안을 점령할 책임을 가진 여호수아를 인도했다. 오직 여호와와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이끄셨다. 여호수아는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의 모형이기에 그의 명령을 순종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그는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군대장관의 말을 듣자마자

그에게 경배했다. 그 문맥이 그 사실을 증거한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와의 전쟁에 대하여 나타나셨다. 군대 장관이란 말이 왜 여호와란 말로 바뀌어졌는가? 두 용어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정체성으로 바뀌어졌다. 한마디로 그 장관은 여호와 자신이었다.

여호수아 6:1-4 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옛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것이며“라고 했다.

둘째, 군대장관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만 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군대장관이고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하시기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그는 우리의 군대장관이시다. 마 28:18 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셨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의 명령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의 군대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의 명령을 신실하게 복종하며 나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모세의 권위처럼 여호수아는 약속된 거룩한 가나안 땅 위에서 그의 신발을 벗어야만 한다. 거룩한 일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어야만 한다.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15 절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라고 한다. 한마디로 군대장관은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 땅의 거룩은 그의 활동의 목적이었다. 지도자가 거룩할 때 그는 자기 백성을 행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의 거룩 속에서 일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개와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차적인 사역이다. 이는 거룩이 하나님의 구속의 일차적 단계이기 때 문이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과 같다.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일차적 사명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은 세상적 생각, 마음, 태도, 지침, 그리고 방법으로 부터 구별된 삶을 의미한다. 당신은 실제생활에 거룩을 지키는가? 당신은 실제생활에 이것과 다투는가? 특히 우리는 세상으로 부터 거룩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자극적인 죄를 조심해야 한다. 성경에 의거 남녀간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요셉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겼는가? 그는 죄의 자리를 피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때 우리가 성경읽기와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드린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한다. ( 고전 3:16)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세제,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군대장관은 무엇을 했는가?- 그의 역할은 도시를 점령한 후 자기 백성을 격려하는 것이다.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다. 그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동반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암시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간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는 하늘로 올리우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그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다. (엡 2:4-7)

계시에 대한 그들의 놀라운 자세가 본문에 나온 여리고 성을 점령함에 그려졌다.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나? 거기에 여러 요소가 있다.

(1) 그의 일은 매우 간단했다. 그의 명령을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은 아이가

부모의 명령을 따라가는 복종이었다. 왜냐하면 복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복종하고 따랐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야 한다.

(2) 그의 일은 언약궤 중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일이다. 그들이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따르는 일이다. 하루에 한번 여리고 성을 7 일간 돌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라고 외쳐야 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우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3) 그들은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 약속의 땅, 선물로 주어진 소유물을 지키고 생각하고 이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전리품을 관리 할 수 없었다. 그 사령관은 가나안의 첫도시인 여리고를 멸하시고 그 백성의 생활에 감사를 배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둘을 모두 성취하였다. 예수의 모형인 여호수아는 그의 명령을 불완전하게 이루었다. 이 사건처럼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시되었다.

우리 생활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 따른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그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믿음과 회개로

주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여호수아”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군대장관은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경륜인 구속을 수행하기 전에 나타났다. 예정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를 따르는 방법과 목적을 배워야하고 그를 섬겨야만 한다.

### 3. 가나안 점령의 실체는 무엇인가? (수 4:6-15)

우리는 가나안 점령과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강림 간의 관련된 진리를 생각해야 한다. 이 둘을 서로 비교하는 까닭은 가나안 점령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상, 가나안 정복은 그리스도 오심의 목적으로 성취되었다. (마 1:21) 자기 백성의 구원은 구속사 안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나안 정복은 구속의 실체, 죄사함, 임마누엘 그리고 사명의 확신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크리스찬 생활 속에 가나안의 실체를 즐긴다. 역시 우리는 현재 생활에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바울이 그의 생애에 “넉넉한 이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로마서 8 장의 경험들이다.

첫째, 그것은 죄 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10) 10 절은 말하기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켈을 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라고 했다. 우리는 가나안 전쟁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왜 하나님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죽이셨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이 없는 아주 잔인한 분이신가? 몽고족의 징기 스퀴칸과 같으신가? 그의 정복 방법은 마을을 점령하면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파멸하는 것이다. 그 방법이 역사상 앗시리아에도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독재자보다 더 강하였다. 이스라엘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파멸해야만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다루심을 보여주신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사건은 자기 백성에게 죄사함의 실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의 실체 중 하나인 죄사함을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다. 요일 1:9 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고 그리고 요일 1:7 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다. 본 구절에 의하면 요한은 죄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즐겼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실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생애에 가장 악한 고난은 죄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를 해결해야 한다. 비록 죄가 매우 불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으로 온전히 해결하셨음을 믿는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원한 죄 용서를 즐겨야 한다.

한 간음한 여인은 자기 생애에 수치스러운 죄에서 어떻게 용서를 얻었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말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그만이 인간문제의 본질인 죄를 해결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성부에게 절대 속죄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보혈로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실체이다.

둘째, 그것은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12) 가나안 정복의 실체는 임마누엘의 경험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임마누엘은 성령충만함의 실체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우리는 가나안 전쟁의 사건들을 생각할 때 전쟁의 승리 원인을 발견한다. 무엇인가? 임마누엘이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이 우리 구속의 목적도 되고 수단도 된다. 우리 사역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된 상태, 임마누엘일 것이다. 우리에게서 젓과 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서 가나안의 실체인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캄보디아 사역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상태를 유지함에 집중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세째, 그것은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실체는 사명의 확신이다. 근본적으로 가나안은 일곱족속의 죄, 우상과 음행에 의해서 파멸된 땅이 되었다. 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밖으로 쫓아 내셨다. 언약의 절정인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교제를 위한 성소로 그 땅을 주셨다. 신약에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을 말한다. 실제적인 가나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이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을 복종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18-19 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다. 그리고 딤후전 2:2 은 말하기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했다. 이 두 구절을 우리는 만민을 제자삼기 위한 전도와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회가 이곳에 집중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가나안의 실체를 즐길 수 있다.

결론: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가나안의 실체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가나안의 실체를 개인의 삶과 사역 속에 즐겨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가나안의 실체는 죄사함 은혜, 임마누엘 의식 그리고 복음전파의 사명의 확신을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의, 인, 신의 회복의 모습이다.

## 2.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서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구속적 윤리와 관계된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후 우리는 인본주의적 윤리로 기울 어지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 곧 구속적 윤리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순례길에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과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러 유혹이 인본주의적 윤리로 기울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사사기는 현실 생활의 인간적 윤리의 위험과 하나님 나라의 구속적 윤리의 영광을 동시에 나타낸다. 필자는 영원한 지도자, 여호와의 사자, 드보라 선지자의 구속의 노래 그리고 기드온 속에 보여진 인본주의적 윤리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영광을 생각하고자 한다.

### I. 영원한 지도자 (삿 1:1-10)

현대 사람들은 교회를 바로 인도할 지도력 곧, 성경적 리더쉽에 초점을 맞춘다. 성경적 리더쉽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사들을 통해 그 본들을 만난다. 그들 속에 우리는 교회 안의 성공적 지도자의 본을 본다. 먼저, 우리는 참된 지도자가 인간이 아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야고보서 3:1 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예수만이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제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가나안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다. 400년 후 그들의 믿음은 남아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타락하였고 영적 생활에 큰 위협을 당하였다. 그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 곧, 신정 세우심을 향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인과 신을 나타내시려고 영적 전쟁을 요구하셨다.

본문에 나온 전쟁을 누가 주관하셨는가?

**첫째, 하나님 자신이 모든 전쟁을 주도하셨다.** - 이 작은 싸움에 누가 먼저 가야만 하느냐고 질문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지시하셨다. (1-2) 유다가 싸우려고 하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 자신이 원수와 싸우는 용사로 전쟁의 승리자이신 까닭은 그 자신이

전쟁을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6:2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크리스찬 생활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환상 속에 말탄 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전쟁을 통솔하시는 분이시다. 사사시대의 모든 전쟁은 영전으로서 그리스도가 친히 주도하신다. 그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용사이심을 뜻한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심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주안점이다. 무엇이 우리의 영적 전쟁인가?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하나의 상징주의로 표현된 영전의 실체를 알고 진리 안에 바로 서야한다. 그러면 영전의 승리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 때 우리는 실제의 원수들 곧, 사탄, 세상 그리고 육(살크스)을 발견한다. 그 가운데 앞선 두 원수는 밖에서 오는 것이나 육은 안에서 일어나서 영혼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원수이기에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분쟁점을 발견한다. 어디인가? 그것은 생각의 영역이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생각에 주목하게 이끈다. 로마서 5:-8: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과 신학을 연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아야만 한다.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 생각의 기능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 10:4-5) 라고 한다. 여기에 논쟁, 이론, 모든 생각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생각의 기능이다. 실제로 생각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생각을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에 깊이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만 한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가? 특히 우리의 생각이 세속 사상에 머물다면 많은 문제와 많은 나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생활의 나쁜 생각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살피라고 권고하셨다. 마가복음 7:20-22 은 지적하기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악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색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전쟁을 이겼다.** 그들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쟁에 실패하고 말것이다. 복종이 영전 승리의 절대 열쇠이다. 바울은 영전에서의 승리의 길의 중요한 것을 에베소서 6 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서서 그리스도로 무장하기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패와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한다. 단순히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가리킨다. 매일 우리는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

나는 캄보디아 한 마을에 박군의 심정이란 전도지를 가지고 개인 전도한 기억이 있다. 그때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마당에 풀어 놓아 기르는 장닭이 소리를 치니 분위기가 흐으려 졌다. 그 때 나는 모두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그에게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로 영접시킨 일이 있었다. 장난처럼 보여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주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두움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의 명령을 따르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고 하신 명령을 겸손히 순종할 때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출입을 자신의 뜻을 따라 이끄셨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지도자는 정한 날에 죽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생활과 전쟁의 삶을 명령했다.(2) 그는 전쟁의 우선권을 유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는 성공적인 전쟁을 위한 연합을 강조했다. 우리의 지도자는 그의 뜻대로 이끄신다.

여호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모두 멸하기까지 일하시는 여호와와 사자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을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신다. 시 23:1-2 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다. 그리고 시편 126:1-6 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았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다. 왜 그들은 눈물로 울면서 고통 속에서 씨를 심어야 하는가? 여호와와는 그들에게 그렇게 신실하심을 요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의와 진실의 토양 위에서 열매를 가져온다.

누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의 인도를 따라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법이고 자세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를 통해서만 세워진다.

## II. 여호와의 사자 (삿 2:1-10)

하나님 형상회복의 시작하시는 분이요 마치는 분이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통하여 더욱 더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가 구약 속에 일하셨던 이슈는 역사 속에 구속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고전 10:1-4 은 중요한 흐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보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항상 그들을 따랐다고 한다. 그 구절은 모든 구약 사건 속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계시에서 놀라운 증거를 발견한다. 상징주의와 모형주의는 구속의 관점에 의해서 해석되어야만 한다.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은 이 흐름에 속한다.

보김에서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꾸짖으신 여호와와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로 지목되는 독특한 사자이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약시대에 일하신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증거가 어디있는가?

**첫째, 그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1-2 절에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주장했다. 출애굽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불행한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와 사자의 얼굴로 나타나셨다.

1) 사사시대에 여전히 그는 일하셨다. 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난 그는 일번천사와 달랐다. 그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일하셨다. 실제로 그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군대장관과 동일하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성육신전 그리스도이다. 여호수아가 죽자 그는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생활에 쉼 없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2) 신약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 28:18-19)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다. 그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개인적이고 보편적으로 일하신다. 오늘 여호와와 사자는 구속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신다.

**둘째 그는 언약을 세우신 분이며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세우셨음을 주장하셨고 그 사자도 동일한 권위를 주장하셨다. 우리가 아는대로 일반 천사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 경배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그들이 교회인 그의 백성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배를 거절했다. (히 1:1) 그러나 이 구절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표현이다. 그는 기드온과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에게 나타난 동일한 사자였다. 그는 그들에게 경배를 받았고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그는 우물 곁의 하갈에게 나타났고 마브레 상수리 나무의 그늘아래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압복강의 야곱에게 나타났다. 비록 그가 그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을지라도 예수에 의해 성취된 여호와와 사자를 가리킨다.

왜 그는 자기 백성에게 간혹 나타나셨나? 한 마디로 그는 언약을 신실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다. 성전은 어떤 영토를 얻거나 그 기업을 보존할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싸움이 교회의 위대한 구속에 속한다.

**셋째, 그는 자신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공언하셨기 때문이다. (2)**

그들의 복과 저주는 그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 태도에 의존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시다. 신약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광야교회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징주의와 모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산다.

**결론:**

이런 활동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적 윤리의 꽃을 피우시고 구속의 위대한 경륜을 성취할 기초와 배경을 마련하신 것이다.

### **III. 드보라의 노래 (삿 5:1-18)**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일하신 구속주는 인간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창세 전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 일하셨다. 그의 의와 백성의 복종간의 하모니인 구속적 윤리는 이스라엘 속에 드보라의 노래에 의해 알려졌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한 드보라와 바락은 구속적 윤리의 본으로서 무엇을 맛보았는가?

첫째, 자신을 성전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파멸될 것이다. 여호와와 원수, 의의 원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원수는 태양 뒤의 나무처럼 어두운 생명을 살게할 수 없다. 우리가 순간순간 영적 전쟁에 자신을 헌신할 때 그는 주님에 대하여 헌신의 삶을 즐길 수 있다.

둘째, 인간관계를 초월한 야엘의 결정은 매우 귀하다. 이방여인 헤벨의 부인 야엘은 그녀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남편의 친구 시스라를 죽였다. 라합과 롯처럼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주를 많이 사랑하는 자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며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셋째, 드보라는 어떤 결정을 했는가? (삿 5:19-31) 하나님이 그의 원수를 파멸시킨 것을 본 드보라는 여호와를 돕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메로스의 예언을 따라 오직 여호와가 그 일을 성취하셨음을 확신했다. (23)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땅의 흔들림으로 그의 원수를 멸하였다.(4-5) 영적 전쟁의 승리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되어진다. 드보라, 바락, 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위하여 여호와와 명령을 복종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는 주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이 지적인 7 가지 전신갑주, 구원의 확신, 의, 진리, 복음전도의 활동, 믿음, 말씀 그리고 기도는 모두 그리스도안에 굳게 선 것을 의미한다.

(엡 6:14-18) 우리의 인도자처럼 새벽이슬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야 한다.

## C. 구속적 윤리와 인본주의적 윤리 (삿 6:11-24)

### 1. 기드온의 구속적 윤리

1) 기드온의 소명 (삿 6:11-24) - 구속의 노래는 기드온의 전 생애에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사용하신 좋은 도구일지라도 그의 자녀들은 구속 윤리를 이루지 못함으로서 악의 도구였다. 누가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나? 어떻게 그는 부름에 응답했는가? 첫째, 구속 윤리의 주체이신 주 하나님이 사사로서 그를 부르셨다. 기드온을 부르신 여호와의 사자는 12 절에 주님 곧 성육신 하기 전 그리스도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명을 주기 위해 그의 사도를 부르실 때에 (마 4:19) 주님은 그의 소명의 근거 위에 사명을 허락하셨다. 구속 윤리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초에 근거해야만 한다. 우리는 구속 윤리 속에 구속의 부름과 사명의 부름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둘째, 어떻게 그의 부름에 응답했는가? 첫째, 그는 일연의 확신을 기대했다. 그것은 그가 확실한 표징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일에 진정한 의심을 갖지 않은 삶은 참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혈만 바빙). 그의 몸부림의 결과로 그가 제단 위에 임한 여호와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평화) 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2) 영적지도력의 조건 (삿 6:25-40) - 또 다시 성령은 영적 지도력 곧 구속적 윤리의 상태를 나타내셨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부름은 마음에서 확신해야 한다. 기드온 자신이 매우 약해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용사로 지정하셨다. (12)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때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그 직위를 위탁하신 권위가 모든 것 중 모든 것인 하나님과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둘째, 그는 말씀의 복종을 필요로 했다. 기드온은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는 일을 복종했을 때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했다. 복종은 기적보다 낫다. (루터) 지도자의 생애는 복종으로 일관해야 한다. 셋째, 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한다. 33-40 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할 때 그의 기도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인의 일은 자기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 (행 1:8) 영적 지도력은 구속 윤리를 세운다. 기드온의 구속윤리, 의, 인, 신은 구속의 영이신 성령을 따름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안에 세워졌다. 그 때 성령은 가나안의 교회 안에 있는 구속 윤리를 성취하는데 분별의 기준을 두었다.

3) 선별 기준 (삿 7:1-14) - 해변 모래같이 많은 연합군을 이기는데 고작 300 명 만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한다. 이 때 정예 용사를 선발하는 기준 세가지가 있었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 곧, 불신양자는 돌아가게 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신다.(히 11:6) 둘째, 주위를 살피지 않고 물에 엎드려져 마시는 자 곧, 안일에 빠진 사람도 제외시켰다. 가시떨기 밭같이 세상 염려, 재리 유혹, 일락에 쉽게 타협된 사람도 쓰임받지 못했다. 오직 말씀을 잘 받아 인내하여 지키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 셋째, 앞을 내다보고 개처럼 물을 마신 사람 곧 깨어 근신하는 신앙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전에 쓰임 받는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4) 하나님의 사역 방법 (삿 7:15-25) - 기드온의 용사들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째, 숫자로 일하지 않으셨다. 32000 명에서 300 명으로 줄이심은 하나님은 적은 수로도 일하심을 보여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겨자씨와 누룩운동이 하나님나라의 확장방법이다. 믿음을 가진 적은 수의 군대가 신식 무기를 갖춘 불신양적 군대보다 더 강하다. 헌신된 소수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Wesley) 둘째,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으로 일하게 하셨다. 기드온의 용사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지도자가 시키는 어리석어 보이는 전법을 그대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순종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7-9 절에 붙인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주권의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이긴다.

## 2. 기드온의 인본주의적 윤리

1) 진정한 승리 (삿 8:1-17) - 외적 승리보다 내적 승리가 더 중요하다. 큰 연합군을 이기는 일보다 내적 분열을 해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첫째, 에브라임 지파(1-5)와 숙곳 사람들과 (5-7) 브누엘의 불만(8-9)이 이스라엘의 화목에 금을 내었다. 주님의 일은 모두 참여하여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엡 4:3) 외적 전쟁의 승리보다 내적 전쟁의 승리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 일곱 성을 점령한 일보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더 큰 용사란 것이다. 둘째, 기드온의 지혜로 위기를 타개했다. 그는 온유한 대답으로 분노를 그치게 하면서 단호한 태도로 전쟁을 거절한 숙곳과 브누엘을 책망했다. 주께 헌신치 않는 자는 사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사랑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선언한 것이다.

2) 신앙의 울무(삿 8:18-28) - 기드온의 혁혁한 승리에 비해 승리 후의 관리에 문제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원수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일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다.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할 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전한 것은 사사로서의 잘한 일이다. 문제는 그의 말에 버금가는 삶이 따르지 못했기에 작은 울무에 걸리고 말았다. 백성들이 바친 금붙이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어 이스라엘의 마음을 모으려 했으나 결국 이스라엘로 여호와 경외신앙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27) 동기가 순수했어도 울무에 빠진 것을 보면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무지했기 때문이다. 바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둘을 잘 조화시키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힘써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너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가르치셨다.

3)기드온의 가정 (삿 8:29-35) - 주의 일꾼에게 건설한 가정 생활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이다. 기드온의 놀라운 승리에 비해 가정 생활은 실패였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첫째, 부부생활에 실패했다. 많은 아내를 둔 것은 창조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목인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다. 밝은 신약시대는 더욱 더 일부일처제의 창조 질서가 지켜질 때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양육의 실패였다. 70 명의 아들이 첩의 아들과 우애하지 못해 훗날 큰 화근이 되었다.(9:5) 아비멜렉의 잔인한 행동은 이스라엘에 큰 비극을 가져왔다. 셋째, 신실성에 금이 갔다. 자기 집안이 다스리지 않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여 이스라엘은 우상을 다시 섬기는 자리로 떨어졌다.(33-34) 지도자의 본이란 그렇게 중요하다.

### 결론:

여호수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사사기에도 같은 흐름을 보였지만 조금 더 점진적이었다. 이스라엘 관계의 다섯 단계의 악순환 즉, 반역, 부패, 징계, 구원 그리고 평화로 이루어진 흑암의 상태 즉, 구속적 윤리의 요소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악순환은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준 것이다. 구속적 윤리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차적 사명이다.

### 3.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회복

#### 서론

룻기는 이스라엘과 모압간의 관계에서 생긴 배경을 가진다. 모압은 룻과 그의 둘째 딸과의 관계에서 생긴 족속이다. 그들은 동쪽으로 옮겨져 사해 근처에 거주하며 양들을 위한 풍성한 목초지가 있었다. 한 때 모압은 이스라엘 경제보다 더 강한 일이 있었다. 특별히 모압은 이스라엘 이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였던 역사적 장소이다.

유다 지파에 속하는 나오미는 심각한 유다의 기근으로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그때 모압은 풍성하였다 그들이 10 년을

살면서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이 질병으로 죽었고 세 과부를 남겼다. 나오미는 그의 한 자부와 함께 이스라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1:1) 그의 둘째 자부는 이렇게 답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16-17) 거기서 신실한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자신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섬김으로 섭리적으로 기업을 무를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가 이방여인이었다 해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룻기는 기업 무를 자에 집중한다. (4:14-17)

왜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상황을 통하여 그의 거룩한 경륜을 성취했는가?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은혜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편주의적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한다. 2) 룻기 속의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두 용어인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보편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 I. 하나님의 섭리의 보이지 않는 손

창조자는 공급자이시고 섭리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으로 그의 구속을 성취 곧 그의 의와 선과 진실의 회복으로 그들을 다스리셨다. 특히 롯기는 우리에게 섭리의 빛을 던진다. 나오미 가족의 고난,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롯의 헌신적인 섬김과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감은 하나님 의 섭리에 포함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은밀한 손아래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 한 교 회를 다스렸다. 마침내 그 손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성취할 것이다.

### **첫째, 섭리는 기적보다 강하다.**

1)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우리가 섭리를 이해할 때 어떤 것을 삶 속에 기대함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된다. 모압에 살았던 나오미의 가족은 놀라운 기적 즉, 그들의 만성적인 절고를 치료했다거 나 경제적인 난관을 해결한 기적이 없었다. 그들은 신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10년 동안 모압에서 보편적인 이 민 생활을 살았다. 그렇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영원한 경영을 성취하기 위하여 불행한 가 족 속에 더욱 놀라운 사건을 준비하셨다. 그리하여 50년 후 보아스와 롯의 자손인 다윗은 참 기업무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그 왕정의 왕이 되었다.

롯이 기업 무를 자에 참여함에 다음과 같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다. 1) 첫 자부, 오르바는 권리를 포기했 고 2) 보아스는

두번째 기업무를 자였고 3) 중인들은 룯이 이방신, 그모스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방여인이었기에 거절했고 4) 보아스 자신도 룯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여러가지 위기가 그 상태에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룯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기업무를 자에 참여케 하셨다. 섭리는 기적의 모태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라를 엘 림으로 변화시키는 섭리의 손에 의해 불들림을 당했다.

###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기업이란 구원에서 오는 풍성한 열매이다. 그것이 구속적 윤리이다. 가나안의 짓과 꿀처럼 하나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이다. 그것은 요셉의 변성과 궁극적으로 하늘에 이르는 복보다 더 풍성한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안의 충성한 기업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 했다. (엡 1:18)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 기업을 이웃과 나누게 해 달라고 구했다. (골 1:12) 역시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주와 그의 말씀께 위탁한 목적이 영원한 기업에 참여케 하려는 것이다. (행 20:32) 그리고 그 기업은 사도의 가르침, 교제, 열심있는 기도, 전도 그리고 기쁨과 순결로 음식을 먹음에 헌신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행 2:42-47)

2) 율법제도 속의 기업이란 무엇인가? 기업무름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각 가정에 주어진 가나안의 토지를 뜻하는 유업이다. 구속자란 본래의 소유주가 어떤 소유로 보아스처럼 옮겨지는 기업의 책임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엘리멜렉의 기업은 기업무를 자 보아스에게 옮겨졌다. 기업에 대한 그의 의무는 그의 아내 룯을 포함시켰다. 보아스가 기업의 중심에 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구속)의 중심에 살아 계신다. 비록 나오미(희락)가 마라(쓰로)로 변했어도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그녀는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손에 의해 회복되었다. 룯은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 되었다. (마 1:)

**세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1) 하나님은 룯이 가진 신실한 삶을 사용하셨다. 지혜의 여인인 그녀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자 아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과 헌신의 삶의 본을 보였다. 특히 그녀가 나오미를 섬기는 삶이 헌신생활의 주요한 씨앗이다. 이 생활로부터 그녀는 다음과 같이 놀라운 덕을 가지고 있었다.

(1) 경건 - 룯의 구속적 인격은 구속적 경건, 여호와 경외심에 의존한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가 여호와와 캠프에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신약의 새로운 언약적 백성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녀의 행동을 믿음이라 암시했다. 믿음은 선택이다. 룯의 그릇된 선택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으나 아브라함과 모세의 선택은 그들의 삶에 하늘 보화를 맛보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적 윤리가 매우 천박한 사실을 확신한다.

(2) 신실함 - 룯의 구속적 교리는 구속적 윤리로 표현되었다. 첫번의 특징은 신실함이다. 그녀는 그녀의 생애에 변할 수 없는 상태를 지속했다. 그녀는 자기 가정과 자기 이웃에게 신실했다. 그의 신실함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 그녀가 모압의 한 작은 자이었지만 그녀의 구속을 통하여 성령은 구속의 특징을 나타내시고 이방인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 구속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는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 16:13)

그녀의 생활의 경우는 우리의 구속과 동일했다. 성령이 교회로 오시면 자연스럽게 구속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영원히 모든 분야에서 성령이 그녀와 같이 구속적 윤리를 발생시키신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작은 일에 신실해야만 한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룯의 신실함은 우리 교회의 본이다.

(3) 근면- 그녀의 신실은 그녀의 근면과 관련된다. 신실은 근면과 관계되어있고 게으름은 거짓과 통한다.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근면은 그리스도인 삶에 구속을 성취하는 채널이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영적 근면을 가졌다. 영적 근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일어날 어떤 이유를 해결할 통찰과 지혜를 가져온다. 그녀 의 신실과 근면을 통하여 그녀는 그리스도의 조상인 보아스를 만났다.(3)

특별히 세계 선교의 사건은 룯의 구속적 윤리의 본을 필요로 한다. 베드로가 뵤전 1:29 절에 선택사가 되도록 가르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덕을 세우는 일을 추구해야만 한다. 목사와 선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크리스찬 윤리와 행함은 구원을 완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백보좌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와 윤리 곧, 구속적 윤리를 가진 믿음이다. (마 25:)

## II. 구속의 보편주의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제한된 사람, 성결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보편주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가 룯기를 볼 때 많은 사건에서 구속의 보편성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을 분명히 부르시려고 자신을 계시하셨다. 예를들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 빌기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라고 했다( 창 15:18-20).

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했다.(수 2:9-12) 역시 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 메시아의 영광에 참여했다. (마 1:5-7) 이것은 구속이 보편주의 성격을 가진 것을 증명한다. 신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 속에 선택받은 자를 방문했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초청을 받았다.

1)사사의 혼란시대에 한 모압여인 룯은 구속역사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다. 성령은 왜 하나님의 구속 참여를 강조하셨는가? 이는 하나님의 구속이 우주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정말 우주적인 구속은 종말론적 구원의 절정에 이른 것이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육체적으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는 그를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마 2:1-6)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는 개종자가 섭리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음을 보였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

## 결론

크리스찬은 하늘 위로가 섭리의 신앙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주장해야만 한다. 비록 그들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 고난을 겪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의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적절한 때에 공급 하심으로 훈련 시키신다. 룻의 경우, 우리에게 보편적인 구속 역사 속의 흐름을 보도록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 중 하나를 비춘다. 이것이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중요한 이유이다.

## 전 화 령 (White Young Jeon)

캄보디아 교육선교사/ 캄보디아개혁신앙연구소장

(CEMF & CRFI president)

- Biblical Theology (O.T), Expository Preaching and Puritanism
- D. Mi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CA, USA (1996)
- M.Div., Hapdong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outh Korea (1981)
- B.A., 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South Korea (1978)
- Taught in International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in Cambodia (Chairman of Old Testament)
- Taught in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USA ( Preaching Professor)

-----  
책 제목: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신학과 신앙 (1 권)

발행일: 2020 2.16

발행소: 캄보디아 개혁신앙연구소

편집: 메리 루, 미국 가정상담전문가